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28일(음력 1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617 호

"템플스테이 4배 지원"

기획예산처 올 예산 150억 … 외국인 상설국제선센터 건립비 50억 책정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4배 증액했다.

기획예산처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매력적인 한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액 35억원보다 4배 증가한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월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 · 운영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시설보강비는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상설 국제선체험센터건립비 50억원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획예산처의 이 같은 방침은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호응도가 높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비를 지난해 349억원 보다 2배 늘어난 695억원을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템플스테이 확대 시행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화관광부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불교 문화공간인 사찰에서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여가문화활용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며 "올해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증액과 관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석심 차장은 "템플스테이가 한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문화관광부 등과 논의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해의 소망 담은 정초기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정월 초사흘인 2월 20일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정초기도 법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한 해의 소망과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합장으로 발원했다. 지난 22일 서울 봉은사 '정해년 정초 산림기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재관람료 인상 정부가 승인?

국회 문광위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 한도를 정부가 직접 승인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4명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인상을 법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징수 사항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병문 의원측은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한 뒤 단독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수정해 관람료 징수나 인상시 문화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시켜 관람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국장 원철스님은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의 시시비비를 아직 말할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라며 "공청회나 관련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득과실을 명확히 따져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 연재 안내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8면(다음주부터)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는 이번호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주부터는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이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연재합니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학문적 견해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13면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지면인 13면에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와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 연재됩니다.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독서비결과 체크 포인트를 짚어 줍니다. 또 헷갈리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말들을 비교하며 정확한 어휘 구사력을 돕습니다. 이 코너는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반 강사 안명옥 시인이 지도합니다.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깨달음의 기회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아름다운 가게' 의 아름다운 사람들

심우암. 암자 이름 같다.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다. 그가 일하는 곳은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 그의 명함은 '서울 지역팀 안국점 매니저'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매장 방문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 틈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기억된다.

잘 알려져 있듯 '아름다운 가게' 는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소리 없는 혁명' 으로 확산 시키고 있는 현장이다. 기부된 물품들을 정리해 싼 값에 팔고 그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가게' 는 전국에 72곳이나 된다. 그 1호점이 안국점이다. 심우암 씨는 안국점의 매니저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다. 1호점이 다른 지역점들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호점은 다른 지역점에 비해 행사도 많다. 행사란 단체 등이 기부한 물건들을 정해진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행사가 없는 날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틈이 없지만 행사가 있는 날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 전날 밤 늦도록 물건을 정리해 두고 당일 아침에는 기부단체와 오픈 행사를 하고 매장 디스플레이를 수차례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언제나 즐거운 표정이 가득하다. "초창기에 기증함에서 치워지지 않은 요강을 발견했을 때는 암담하기까지 했었다" 는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상당히 안착되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다"며 웃어 보였다.

심우암씨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쓰던 작은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웃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사진 가운데)이 최문순 MBC 사장에게 항의하며 공식사과 및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고 있다.

MBC보도국 "잘못 인정·정정보도하겠다"

'문화재 보수비' 사용 관련 보도에 조계종·문화재청 등 반박

MBC가 월정사 및 도피안사 관련 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를 약속했다. MBC는 2월 20일과 21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 24'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석탑(월정사) 및 불상(도피안사) 보수를 위해 지원된 예산이 수행자와 스님들의 숙소를 고치고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형일 MBC 보도국 사건팀장은 2월 23일 조계종 항의방문단과의 실무협의에서 "뉴스투데이 오전 방송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자가 직접 출연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항의방문단이 밝혔다.

정형일 팀장은 또 "뉴스데스크, 뉴스 24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쉽지 않은데, 먼저 담당기자의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연락 주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진 보도본부장도 이날 면담에서 "내용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시인한 뒤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확인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MBC 사장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항의방문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문화부장 탁연, 월정사 재무국장 법상, 신흥사 포교국장 정묵 스님 등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제보를 근거로 취재를 해 오보가 난 것은 불교 죽이기라는 시각이 팽배하며, 이러한 오보는 불교를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항의방문단은 MBC의 공식사과 및 정정보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취재과정상의 비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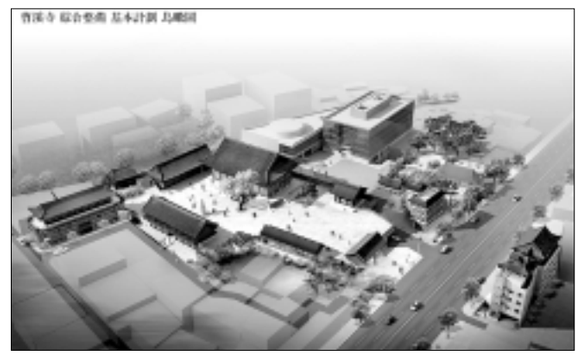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월정사, 사단법인 보리, 문화재청은 '석탑과 불상을 고치라고 지원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 "월정사에 석탑 보수비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원래 서별당의 보수 및 복원 용도로 15억원을 지원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도피안사에도 원래 불상 보수비 5000만원과 무설전 개축비 7억 1500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불상보수비로 지원된 것이 무설전 개축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중심도량 조·계·사

시민선원 · 문화사업관 · 영산전 건립
4월부터 법당 개방, 신도체계 개편



조계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조감도.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올해 시민선원과 문화사업관, 영산전을 잇따라 건립하며 한국불교 중심도량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조계사가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선원은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대중화할 수 있는 수행체험공간과 내·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총 33억원이 투입될 시민선원은 수송빌딩과 안심당을 해체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지면적은 241평이며, 건축면적은 603평. 조계사측은 조만간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통과한 뒤 올 10월 이전 준공할 방침이다.

인사동-조계사-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사업관은 대지면적 175평, 건축면적 800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40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산전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으로 기존 목조 석가모니 부처님 및 후불탱화를 모실 전각 및 신행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된다. 대지면적 263평, 건축면적 20평에 맞배지붕 정면3칸 측면2칸으로 조성된다.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준공할 계획이다.

조계사는 또 종합장례문화사업을 실시해 신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계사측은 장례 문제를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포교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사는 이 외에도 4월 보름부터 3년 동안 24시간 법당을 개방해 새벽이나 밤늦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올 가을 경 신도회도 통폐합하고 신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문화, 사회봉사, 해외포교 등 분야별 신행활동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조계사는 2010년 조계사 전신인 각황사 창건 100주년을 맞아,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조계사 사지 발간 작업을 우선 완료하고 역사 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역화 불사와 함께 신행문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국사 종회의원 종상 · 종광 스님

선관위, 무투표 당선 확정

경주 불국사 중앙종회의원에 종상 스님(前 불국사 주지)과 종광 스님(경주 기림사 주지)이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72차 회의를 열고, 14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11교구(불국사교구)에 입후보한 종상 스님과 종광 스님의 자격심사를 한 뒤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종상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연주암·청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68년 사미계, 71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광 스님은 11·12·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간사에 덕산 스님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혜자 스님 종정 표창, '108산사…' 공로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새로운 신행문화를 개척한 공로로 2월 22일 조계종 종정 표창을 받았다(사진). 혜자 스님은 '선묵혜자 스님과 함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표창을 수여하며 "108산사 순례기도회로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함은 물론 참배하는 사찰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등 총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에 혜자 스님은 "승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아 부끄럽다"며 "사찰을 방문할 때 인근 군법당도 방문하고 108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하는 등 군포교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108 순례단은 2월 28일과 3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논산 관촉사와 논산훈련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동방대학원대·금강대 첫 졸업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와 천태종립 금강대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각종립 위덕대도 2월 22일 지혜관에서 총 740여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2월 23일 강당에서 제1회 학위수여전례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위수여자는 서화예술학과 신영숙씨 등 석사과정 10명과 불교문예학과 이성룡씨 등 연구과정 8명 포함 총 18명이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2005년 3개 학과로 문을 연 이후 현재 6개 학과에 150명이 재학하고 있다.

금강대도 2월 26일 강당에서 첫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교육'이라는 교육방식을 슬로건으로 2003년 개교했다. 금강대는 입학정원 충원율에 구애받지 않고 수능 1~2등급 이내의 기본 소양 자격조건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정각선원에 신중탱화 3월 5일 점안법회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해봉)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허태수)는 3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정각선원에서 신중탱화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정각선원에 모셔질 신중탱화는 지난해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계기로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조성한 것으로, 점안 법회에는 영주 부석사 조실 근일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한다. 여수령 기자

도암 스님 2주기 추모재 3월 5일 서울 흥도사서



도암 스님 문도회(회장 서호·사진)는 3월 5일 서울 흥도사에서 대승종前 종정 도암당(道庵堂) 성도(性道) 대종사 2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2005년 2월 25일 입적에 든 도암 스님은 1920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35년 대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 38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사미계, 39년 개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8년 대한불교 대승종을 창종,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02)2234-2198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산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 곳, 가장 품격있게 대소승의 경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곳, 가장 심도있게 종파불교와 여타종교를 비교분석하는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에서는 1300년 전 원효대사의 저술 102부 302권 가운데 불세출의 명작이라고 평판받는 대승기신론 해동소·별기의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이 짓고 신라의 원효대사가 심혈을 기울여 풀이한 이 독보적 논서는 대승불교를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체계화하여 소승불교의 독선과 경원을 완벽하게 잠재워 버린 인류최고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아래의 장엄한 법회에서 원효가 남긴 이 금과옥조 같은 불멸의 유산을 물려받아 삼계의 노숙자가 우주의 제왕이 되는 성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大乘起信論

海東疏·別記
5期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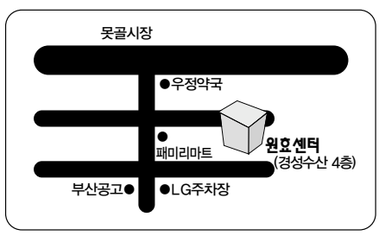
- 4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 강 : 2007년 3월 15일(목) 오후 8시
■장 소 :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기 간 : 1년
■법 회 : 매주 목요일 오후8시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사 : 공파스님
합천 해인사에서 삼장 수학.
S.E.A.T대학원(RP)에서 유태신학 수학.
4년간 남방비구생활.
국제승려.

■저서 : 부처님의 유언
천수경의 원본경전
극락세계 1.2.3
원효전집 6권
The Vajra Suira(영판)
바이로차나 그 외 다수

※ 3월 15일(목) 오후 8시에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전화 051)611-3808,1924 e-mail: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Gongpaam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시 남구 대연1동 1753-16
대연동 못골시장 육교 밑 우정약국 못골목 경성수산 4층

방치 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청 관리인 선발 계획

폐사지나 산간오지에 방치된 불교문화재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3월부터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400여 명의 '문화재특별관리인'을 선발해 소외된 문화재 관리 및 유지를 위탁하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을 실시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문화재특별관리인'에 선정된 사람은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문화재 보호구역을 청소하고 주변을 순찰함으로써 화재와 도난 · 훼손을 예방하는 문화재 관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수령 기자

'백제의 미소' 보호각 벗어
서산군 내달 철거 착수

'백제의 미소'가 보호각을 벗어나 햇빛 속에서 되살아난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은 훼손 방지를 위해 세운 보호각이 습기를 유발하고 자연채광을 가려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의 보호각을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던 서산시는 최근 새 보호각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 새로운 설계에 따르면 마애삼존불 위에 자연채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의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벽이나 기둥은 세우지 않는다. 서산마애삼존불은 1965년 보호각이 설치된 지 42년 만에 햇빛을 받는다.

여수령 기자

태극기 휘날리고
한·중·일 유적지도 답사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올 행사계획 다양…심포지엄 · 백일장도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 이하 기념사업회)가 올해도 태극기게양운동, 학술심포지엄, 국내 및 중국항일 사적지 탐방, 백일장 개최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친다. 기념사업회는 2월 23일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올해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월 28일 낮 12시 서울 명동에서 펼쳐질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운동'이 주목할만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독립선언문과 제 2광복 새정신운동 취지문을 복사해 태극기와 함께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4월 12일 오전 10시 남양주 봉선사 대법당에서는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제38주기 추모제'가 봉행된다.

기념사업회는 연등축제가 펼쳐지는 5월 20일 축제현장에서 김성숙 선생의 공적을 알릴 계획도 세웠다. 이와관련 연등축제 당일에는 조계사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꽃만들기' '불교관련 그림그리기' '염주만들기'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담긴 수첩 1000부를 제작해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8월 1일에는 김성숙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한다. '항일운동과 해방 후 정치활동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1920년대 초반 북경 의열단과 중경 임시정부 시절의 활동모습, 해방 후 정치활동 등이 집중 조명된다. 주제발표는 한국근현대사학회 교수진이 주축이 되며, 중국 중산대 한국연구소 교수 등 중국 사학자들도 일부 초청된다.

올 한해 기념사업중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호응도가 높았던 중국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이다. 올해도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기념사업회 인터넷(www.kimsungsuk.or.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대학생 50명 정도를 선발한다.

10월 13 · 14일 양일간 국내항일 유적지 탐방도 진행한다. 일제시대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찰인 봉선사를 비롯해 충남 홍성의 김좌진 장군 기념관과 만해 스님 생가, 윤봉길 의사사적지인 충남 예산 충의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련된다.

11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나라사랑 운암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에서는 국가보훈처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 등 많은 시상 기회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측은 회보 제작과 중고생 장학금 지급, 경기도 성남 자광원을 월 1회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욕봉사 사업도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중산대내 김성숙 기념관 건립추진, 경기도 양평 용문사 옆에 20만평 규모의 테마파크 건립추진, 중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사업 등도 기념사업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다.

민성진 사무국장은 "차별화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홍보물들을 통해 김성숙 선생의 업적과 그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정신을 알릴 것"이라며 "요즘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김성숙 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東大 일산병원 암센터 열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이 2월 22일 병원 지하 1층에서 암센터와 방사선종양학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암센터는 개원이후 운영해 오던 암치료팀을 확대 개편한 것. 특히 암센터에는 초정밀 선형가속기를 도입, 암치료 부위에만 정확히 방사선을 조사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 전문 암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암센터는 외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성형외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등 20여 양 · 한방 의료진 및 여러 행정조직의 협조진료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경영부총장제도 도입
東大 이사회서 결의

동국대가 경영부총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각 병원에 조계종 스님 법사가 배치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는 2월 15일 제226회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의 핵심인 정관변경의 건은 오영교 신임 총장의 학제개편안에 따른 것. 이는 서울캠퍼스에 경영부총장 · 학사부총장, 경주캠퍼스에 경주부총장, 의료원에 의무부총장이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캠퍼스 경영과 일반행정을 분담하게 되는 경영부총장은 별정직으로 외부 전문가에 개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장직속의 경영관리실(혁신관리팀, CS경영팀), 자금조달계획과 수익사업 기획을 담당하는 사업개발부서를 신설해 정책조정과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 병원에는 조계종 스님 법사를 둔다. 정관변경은 오는 3월 중 교육부의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2007학년도 예산으로 총 5137억여 원을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새봄, 미술관에서 봄꽃같은 불심이 피네

봄을 맞아 서울 인사동을 비롯한 화랑가에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월 21일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색'에서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불화, 불상 등 총 43점의 불교미술이 선보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가운데)이 문명대 한국불교미술협회 이사장(오른쪽), 김창균 회장과 함께 작품 '아미타부처님'을 감상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복지사들도 禪수행 합니다"
조계종사회복재단 3월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3월부터 불교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활동가를 대상으로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불교적 소양과 신행심 고취를 위한 수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으로, 조계종이 보급하고 있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과 불교복지의 개념을 접목해 만들어졌다.

3월 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진행된다. 회향은 5월 29일. 무각 스님(서울 공생선원장)과 고명석(포교원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용권(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황수경(동국대 강사)씨가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30명 모집에 참가비는 20만원. (02)723-5101

여수령 기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조형물
대구 대성사에 조성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대구 중구 서야동 대성사(주지 범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지금의 대성사 자리가 1907년 당시 서상돈, 김광제 등이 모여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한 대구 최대의 인쇄소 광문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만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재조명된 대성사 경내에는 국채보상운동 선언문 낭독 기념 조형물



이 2월 12일 세워졌다(사진).

표석에는 "1907년 1월 29일 광문회 회원들은 일본에 진 나라 빚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담배를 끊기로 결의했다. 2년여 동안 불타오른 국채보상운동의 첫 불길이다"란 글귀가 쓰여있다.

배지선 객원기자

법계 장학금 지급
명성 스님 8명에

제5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이 2월 21일 거행됐다(사진). 법계장학금은 前 운문사 승가대학장 법계명성 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으며, 신심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불자들에게 주는 장학제도다.

이날 자원(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 일중(인도 델리대 박사과정) · 경산(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능학(동국대 선학과 졸) · 정범(동국



대 경주 선학과) · 지환(중앙승가대 선학과) · 동호(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불교학과) 스님과 박남순(중국 베이징 외국어대 중문과)씨 등 8명에게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화계사 지역민과 대보름행사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보름 행사를 마련한다.

화계사는 3월 3일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송암교회, 한신대 운동장, 화계사 등에서 '화계 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부럼 나눠주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함께 시낭송,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행사는 횃불 점등과 달집태우기로 마무리된다.

남동우 기자

공 고

지난 2월 13일 선암사 적묵당에서 실시된 선암사 제27세 주지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시행근거 :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제9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선암사운영위원회법이 폐지(한국불교신문 2007년 1월 4일자 공고)되고 태고총림 선암사법이 개정되어 조속히 재적승 총회를 개최하라는 통지(문서번호 태고총무 제2-13호)를 받았음.

이에 근거하여 선암사 수습대책위원들과 재적승은 동년 1월 31일, 회합을 갖고 2월 13일 오후 1시 선암사에서 전산총회를 열어 주지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에 합의하고 2월 2일 수습대책위원장이 "선암사 재적승 총회 개최공고"(한국불교신문 2월 2일자)를 하였음.

이에 공고한대로 동년 2월 13일 오후 1시 선암사 적묵당에서 재적승총회(전산대회)를 개최하여 재적승 총169명 중 107명(최종집계)이 참석, 105명이 투표(최종집계)하여 주지후보로 추천된 2명 가운데 백설운 60표, 임호명 44표, 무효 1표로 **백설운 스님이 선암사 제27세 주지에 당선**되었다.

이에 공고하고 선암사 수습대책위는 제반 업무를 종료하고 선암사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선암사 제27세 주지 당선자인 백설운 스님에게 일임한다.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13일

선암사사태 수습위원장, 재적승 전산총회 의장 원명

주지 당선을 축하합니다

선암사 신도회
상가번영회
대각암(주지 상명) 신도일동
대승암 주지, 신도일동
용화사(주지 경산) 신도일동
남룡사(주지 도송) 신도일동
장원사 주지, 신도일동
기원정사 주지, 신도일동
정암사 신도일동
원평사 신도일동

청명(淸明)을 기다리며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란 자각
이것이 나에게는 왜 그리도 늦게 찾아왔던가?

입춘(立春)이 훨씬 지나, 죽은 듯이 땅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소생시킨다는 우수(雨水)가 왔다.

올 봄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뇌게 되는 꽃샘추위도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보니, 봄은 벌써 내 마음 속에 연초록의 싹을 틔우고 있다.

사실 나는 꽤 오래 전부터 올해의 봄을 유난히 기다려온 터였다. 좀 더 부언하자면 마치 중요한 약속이나 있는 듯이 최근 몇 년간을 줄곧 정해년 봄을 셈하듯이 손가락 꼽아 왔던 것이다. 왜 그렇게 2007년 봄을 기다렸나 하면 무슨 꽃구경이나, 산천유람을 가거나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굳이 성급하게 봄을 기다린 이유를 들어보자면 일종의 결행(?)을 정해년 봄에 하고 말리라는 스스로의 다짐 같은 것을 내 마음 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련만, 이렇게 서두를 꺼낸 다음에야 객담이 될지언정 이런저런 사정을 늘어놓을 수밖에….

사년 여 전 차례로 부모님을 영별(永別)하고, 어찌나 온갖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삶이 허망하던지, 지금도 그 싸하고, 허전한 심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누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보여 왔던 나로서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맞은 장례기간 동안 나는 넋이 빠져나간 돌조각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십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오는 회한과 자책감은 나의 혼을 송두리째 빼놓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나는 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야 말로 나의 삶이다. 해서 나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나만의 세계를 확보하리라'는 식의 신념 아닌 신념을 부모님들에조차 들이대고는 막무가내로 내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불효막심한 생활이었던 것이다.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무언가 속죄(?)를 위한 인연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만사휴의! 애별리고(愛別離苦), 오온성고(五蘊盛苦)만 텅 빈 가슴속에 가득할 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나의 이런 신산한 심사는 엉뚱한 곳에서 틀어졌었다. 아내와 여동생, 제수씨들이 의견을 모아 쓸만한 물건들을 분류한 다음, 나머지 정리할 물건들을 커다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집 밖으로 막 들고 나갈 즈음이었다. 밖에서 돌아온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용수철이 퉁기듯이 그 뭉치들을 낚아채었다. 씩씩거리면서 그것들을 거칠게 풀어헤치고, 내용물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놓았다. 그리고는 콧날이 시큰함을 느끼면서, 그 잡동사니들 중에서 눈이 가는대로 물건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았다.

헌 옷가지, 안경, 도장, 낡은 지갑, 낡은 모자, 손톱깎이…등등. 나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소리소리 질렀다.

"너들 이런 식으로 유품을 함부로 버릴 수 있나. 나중에 너들도 이렇게 버려질 줄 알아라! 매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여자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허접 쓰레기들을 모아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쏘아부쳤지만, 나는 아랑곳 않고 무슨 값나가는 골동품이라도 되는 양 그것들을 차곡차곡 챙겨두었다.

나중에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구해온 종이 박스에 그것들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두었다. 그렇게 끈으로 격자 묶음까지 해서 들고 온 물건들을 내 집필실에 쌓아두고 혹은 벽에 걸어놓고, 나는 은밀히 변형된 삼년상(?)을 치루고 있다는 비장감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삼년 여의 세월이 흘러버렸다. 이제 아들녀석들도 대학에 입학하여 객지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들들을 만날 때마다 빠트리지 않고 당부를 한다.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밥은 꼭 챙겨먹고,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라. 지금은 젊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몸이 상하게 된다.…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두어라.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과 판박이인가!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들 녀석들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결국 아버지와 나와 아들 녀석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도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무한한 인연 속에 내가 잠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이후로 나의 뇌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 잠깐 현재(顯在)하는 존재가 아니던가? 혼자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나에게는 왜 그리도 늦게 찾아왔던가?

나는 분별심(分別心)이란 말의 뜻을 이제 알 것 같다. 나에게 분별심이란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 등을 변별(辨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分), 별개로 존재한다(別)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만물이 인과 연의 법칙, 환언해서 인연법에 의해 생멸할진대 어찌 단절된 독자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분별심(分別心)을 가지지 말라'는 법구는 '변별심(辨別心)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연법을 알아서 삶을 그르치지 말라'는 경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는 정해년 봄에 굳히고 말 것 같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란 말도 분별독존(分別獨存)의 뜻이 아니라, 인연법이 비록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필연의 그물망이라 할지라도 주체적인 항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잇다보니 수처작주 입처개진 (數處作主 立處皆眞)이란 구절도 인연법을 숙명으로 오해 말고 인연법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자상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자각을 해본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는 없지만,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그렇게 절제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리라.

얘기가 너무 비약돼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 것 같다. 갈피를 잡아 올봄에 결행해야 할 나의 제의(祭儀)로 돌아가도록 하자.

가뜩이나 좁아터진 나의 작업실에 잡동사니들을 늘어놓고는 부모님과의 인연끈을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바둥되는 나의 모습이 문득문득 애처롭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였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스스로 상당한 위안을 받은 것 같다. 아버지의 낡은 모자도 써보고, 주머니 깃이 헤진 바지도 입어보고, 뭑직한 안경도 끼어보고, 어머님이 애지중지 하시던 꽃무늬가 많은 보자기에 내 소지품도 싸보고…. 그러나 만사가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했던가.

이렇게 유품들과 연관해서 받는 위안이란 옛 추억이 되살아나고 더불어 회한도 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슬프고 허무한 페이소스만 쌓여갈 뿐, 내 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지난겨울 눈발이 날리던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제 때가 된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이제 정리를 하자. 가버린 인연끈들은 놓아버리고, 나 또한 갈 길은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나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내 궁리를 하던 끝에 막연하게 봄이 되면 무언가 방편이 잡히리라 기대하여 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제의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끙끙거리던 나에게 '반야심경'을 독송하던 중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날을 잡았다. 본격적인 봄 날씨로 접어든다는 청명(淸明)으로 말이다. 그날 나는 정리할 물품들을 들고, 약간의 제물들을 준비해서 두 분의 묘소를 찾아가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려놓고, 반야심경을 독경하면서 두 분이 저 피안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발원하리라.

나도 이번 봄에는 회한의 터널을 빠져나와 분별심을 버리고, 인연법에 순승(順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발원하리라.

청명(淸明)날의 발원문을 지금부터 따로 만들어 둘 것인 즉…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림 · 이동수

그날, 묘소 찾아가 두 분이 피안 가시도록…



강인석
부산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2003년 <문학나무>(여름호)에 '무풍에서'로 추천 등단. 현재 미니픽션 작가모임 정회원.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미타선원 선방 산철결제 방부안내

편안히 오셔서 수행의 즐거움과 법열(法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심 속의 참선전문 수행도량 미타선원의 재가선방 첫 동안거가 20여명 수행자들의 뜨거운 수행열기와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오롯이 이어서 동안거 해제 후 산철에도 결제를 계속합니다.
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방부접수 하시어 수행의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입방일 : **3월 17일(토) 오후 2시**
◈접 수 : **051)253-8687**
◈위 치 :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남포동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로 누구나 편안히 오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 www.mitazen.net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

비구니 32법사스님 특별초청법회

금번 전국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의 진흥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하여
'법화산림' 특별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스님은 관세음보살 32응신을 상징하여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된
32법사스님을 초청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일 시 : 2007년 3월 11일 ~ 10월 21일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 대법당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부근)
▮문 의 : 02)3411-8103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절과 마을의 관계 "한 바탱입니더"



사하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식당 술집 호텔 등으로 가득한 순지리. 어지간한 크기의 읍내보다 더 번화하다.

통도사 사하촌은 통도사 아래의 순지리와 뒤쪽의 지산리이다. 오후 세 시쯤 통도사에 도착해 절집을 둘러보고, 절 아래 마을인 순지리로 향했다. 사하촌이라고는 하지만 촌(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보이는 것은 식당이요, 러브호텔이요, 술집이다. 어지간한 크기의 읍내보다 번화한 곳이다. 마을의 내력을 물어보러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보지만, "모립니더"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안내소에 문의를 했더니, 평산이나 지산리에 가면 더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저 쪽으로 가서 구도로를 타고 가면 됩니더" 한다. 구도로가 어디 있는지, 알 턱은 없지만, 무작정 가리킨 방향으로 향한다. 야트막한 고개 하나를 오르니, 마을은 없고, '통도 환타지'라는 놀이동산이 나온다. 상가가 발달하다 유원지까지 생겼다. '통도환타지'를 지나 계속 나아가니, 어느새 도착한 곳은 통도사 나들목 부근이다. '행여 내가 길을 잘못 보았을까?' 하는 생각에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그래도 없다. 다시 간다. 없다. 이번에는 통도사 나들목 인근에서 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다. 물어볼 사람도 없다. 짐작이 가는 마을길을 여러 군데 들어가 본다. 그래도 평산과 지산은 없다. 어둑어둑해진다. 우연히 낯선 마을 앞 버스정류소를 겸한 가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쪽 가다 좌회전해서 쪽" 가라고 한다. 그때서야 이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인다. 마침내 평산 지산을 말해주는 표지판이 보인다. 이곳도 숫제 음식점이다. 흑염소, 닭도리탕, 메기 매운탕, 돼지 갈비 등 메뉴도 다양하다. 마을을 찾기는 했지만, 선뜻 들어가서 마을의 내력을 물어볼 곳은 없다. 그새 밤이다. 취재를 마치고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마음을 접는다. 네댓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셈이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③ 영축산 통도사

저녁을 먹으러 손두부 식당으로 향한다. "그 집 아주머니가 저 식당 하기 전에도 다른 식당에서 오래 일했다캤으니 좀 알 겁니더"라고 말하던 안내소 직원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니, 일하는 사람들은 말 건넬 틈 없이 바쁘다. 용건을 말했더니, "내가 뭐 아는 기 있어야지예"하면서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말을 덧붙인다. 식사를 하면서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시쯤 되어서 나타난 일하는 사람 하나가, "아저씨. 우리 문 닫을 시간입니더" 그런다. 계산을 하러 나왔더니, 주인 여자가 "아까 뭐 물어 보신다고 안 했어요?" 한다. 웃음이 나온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의 하나인 불보사찰 통도사. 유명세 탓에 주위에는 장사꾼만 남은 것 같다. 그도 좋은 일이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살림이니.

다음 날, 또 하나의 사하촌인 지산리로 향한다. 평산 마을과 지산 마을이 따로 있지만 합쳐서 지산리라 칭한다. 영축산 바로 아래 위치한 마을. 마을 주위에는 드물지 않게 암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집들이 식당과 민박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몇 집은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구판장 옆 노인정에 몇 사람이 모여 있다.

"한 바탱입니더."

통도사와 마을과의 관계를 묻자, 김쌍연(71. 지산) 할머니의 대답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기 마을에서 이 마을은 1반이고, 통도사는 3반이고 그랬다."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그 전에 배급 같은 거 있을 때, 이장이 통도사 갖다 준다고, 3반에 간다고 그랬다." 이화연(77. 지산)할머니의 말이었다.

"여기는 모립니다. 절이 오래 됐는지, 마을이 오래 됐는지. 그거 알만한 노인네들은 다 세상 베리고."

원래 있던 마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마을이 지금의 크기로 형성된 것은 50여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스님들의 속가 몇 채가 있었고, '오막살이 쪼만 있었'다고 한다.

"50년쯤에 다 들어왔지. 전쟁 끝나고 피해 온 사람 많지." 김홍조(71. 평산)할아버지의 말이다. "옛날에는 통도사 땅이 많으니끼네 땅 빌어먹고 살 수 있어. 절이 있으면 지아먹고 살 수 있어 들왔지." 이화연 할머니의 말에, 땅이 평평한 곳이 많으니, 마음대로 개간하고 그랬겠다고 하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쪼매끔썩 (개간을) 해 가면, (소작료를) 다 한 홉도 받아가고 두 홉도 받아가고 그랬지. 그래 세를 가져오락 한다니끼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마을 말고는 다 절 산이라. 질 밟고 댕기는 것도 다 절 땅인데, 그래 질도 크게 못 넓힌다 아입니까."

지금도 절 땅을 소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지금 누가 절 땅 질락하나. 다 회사 다녀뿔고 없어요." "농토 이거 바라보고는 지 껏도 아닌데 뭐. 빌어먹기 딱 좋지." 농촌의 현실이 아프게 담긴 대답만 쏟아진다.

통도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순지리 내력 아는 사람 없고
어지간한 읍내보다 더 번화
현재 지산리는 한국전쟁 후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 된 마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지금 크기의 지산리가 형성되었다.

그릇 귀신 **신정희** 선생님

"이것이 내 종교"



50여 년 명맥이 끊겼던 조선 사발을 재현시켜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신정희(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74번지 · 사진)선생의 작업실에는 어떤 안내판도 없다.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장작 가마와 무수히 쌓인 장작더미만이 도자기 굽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찾아간 작업실에 선생은 없었다. "왜 현판이 없대요?" 물었더니, 바쁘게 그릇을 싸고 있던 여자 분이 "다 알고 찾아오는데요"라고 대답했다.

방금 나갔다는 선생은 한 시간쯤 후에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1930년에 태어나 열여덟 살 때 우연히 한 시인이 준 청자사금파리 하나가 인연이 되어, 우리 그릇에 푹 빠져버렸다는 그릇 귀신. 그릇에 미쳐 밖으로만 떠도는 선생을 위해 집에서 굿을 세 번이나 했다는 그였다.

"이게 내 종교라."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선생은 내게 차를 권했다. "30년 전에만 해도 그저 줘도 안 했어." 선생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사발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들은 이미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할아버지가 워낙 주는 것을 좋아 하시거든요." 옆에 있던 제자가 덧붙인 말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이채롭다. 선생이 도제 교육을 통해 길러낸 제자는 아들 4형제를 비롯하여 30명 정도에 이르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통칭 '申正熙家'라 한다.

벌써 70대 후반에 이른 나이.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시냐니까, 단호하게, "그럼 하지" 그런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 나를 배웅 나온 선생. 우중충한 하늘을 보고난 후 높게 쌓인 나무 더미를 가리키며, "이것을 왜 안 덮고 갔을까?" 나무에 비 들까봐 걱정이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3주 2월 22일 - 2월 28일 [16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22일[목]	발 안	-	안산팔곡	26km
2월23일[금]	팔 곡	-	신 천	29km
2월24일[토]	신 천	월미도	송현사거리	27km
2월25일[일]	송현사거리	-	김포장기	26km
2월26일[월]	장 기	-	강화읍	21km
2월27일[화]	강화읍	-	외포리	19km
2월28일[수]	외포리	마니산참성대	함허동천	21km

제14주 3월 1일 - 3월 7일 [160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3월 1일[목]	함허동천	-	대곶	19km
3월 2일[금]	대곶	양촌 검단	승가대학교	21km
3월 3일[토]	승가대학교	-	법안정사	22km
3월 4일[일]	목동 - 의사당앞 - 국립묘지 - 잠 실			23km
3월 5일[월]	잠실 - 태 릉 - 4.19탑 - 정 릉			27km
3월 6일[화]	정릉 - 청 와 대 - 시청앞 - 서대문			23km
3월 7일[수]	서대문	상암	일산 지장도량	25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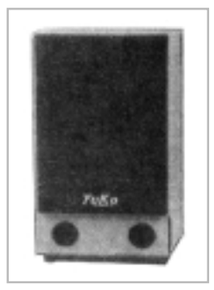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전문으로 의식하실 분)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갖추어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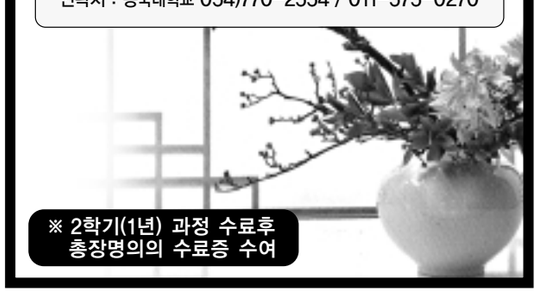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과정 수강생 모집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을 고르고, 다듬어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일은 또 다른 하나의 선(禪)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물에 꽃을 담는 행위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공부이며 부처님을 예경하는것 중 으뜸이다.

◆ 불교정통꽃꽂이 과정 : 정원 15명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서울 캠퍼스
◆ 화훼 기능사 자격시험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 담당교수 : 정 진 희
연락처 : 동국대학교 02)2260-3728~9 / 011-730-6845

◆ 불교정통꽃꽂이과정 :정원 20명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5시〉 — 경 주 캠퍼스
● 담당교수 : 윤 정 혜
연락처 : 동국대학교 054)770-2554 / 011-575-0270



※ 2학기(1년) 과정 수료후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不老化精」입니다.

◆ 가격:**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범음범패를 공부하실 회원을 모십니다

대구영남의 대중들이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십시다

赴焚修하되 須早暮勤行하야 自責懈怠하며 知衆行次하야 不得雜亂하며 讚唄祝願하되 須誦文觀義언정 不得但隨音聲하고 不得韻曲不調하며 瞻敬尊顔하되 不得攀緣異境이어다

◆요령 목탁은 모든 의식의 근본이 되는 법구입니다. 더불어 광쇠 태징 북 등을 범패와 작법에 맞게 다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불과 불공, 연중(특별)행사의 법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재 천도재 예수재 수륙재 시다림법문(임종염불) 등에 임하여 부족하거나 황당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불상과 탱화를 모시는 점안법회는 정말 거룩한 의식이지요?
◆주요 경전과 의식의 우리말 독송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삼십구위 일백사위의 신중작법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를 배워봄은 어떠하십니까?

*이것뿐 이겠습니까? 혹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발심만 하십시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고, 의심스러우시겠지요? 와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다.
*불교의 의식에 바르게 임하는 것이야 말로 선(禪)이며, 교(敎)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가야 하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현성에 부끄럽지 않고, 시주에 수치스럽지 않음을 추구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교계의 대덕 큰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의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주변의 가까운 도반과 함께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得粥祝願하되 不解其意하면 亦不壇越에 應羞恥乎며 得食唱唄하되 不達其趣하면 亦不賢聖에 應慙愧乎아 人惡尾蟲이 不辨淨穢인달하야 聖憎沙門이 不變淨穢니라

나무관세음보살

※제1기 회원모집 (삭발염의 출가승려에 한함)
※접수마감 및 교육원 개강 : 2007. 3. 9(금) 오후 2시
(회원교육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제가불자의 회원모집은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 육 원 : 경부선 영천IC에서 10분 거리 (慈 光 園)
※문의전화 : 054)336-4475~6 / 010)4579-0408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 정회원 일동 합장

대자암 시방당 선원
가행정진 1년 결사 모집공고

1년 결사 기간
2007년 음력 4월 15일 부터
2008년 음력 3월 15일 까지

◆ 참가자격 : 비구승 및 거사
(삭발염의 방부비 없음)
◆ 모집인원 : 10명
◆ 정진방법 : 수면시간 23시~01시 까지 2시간
(수면시간 외 시간은 용맹정진과 동일함)
◆ 접수마감 : 2007년 음력 2월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계룡산 갑사 대자암
시방당선원 회주 영 파
전화 041)857-5880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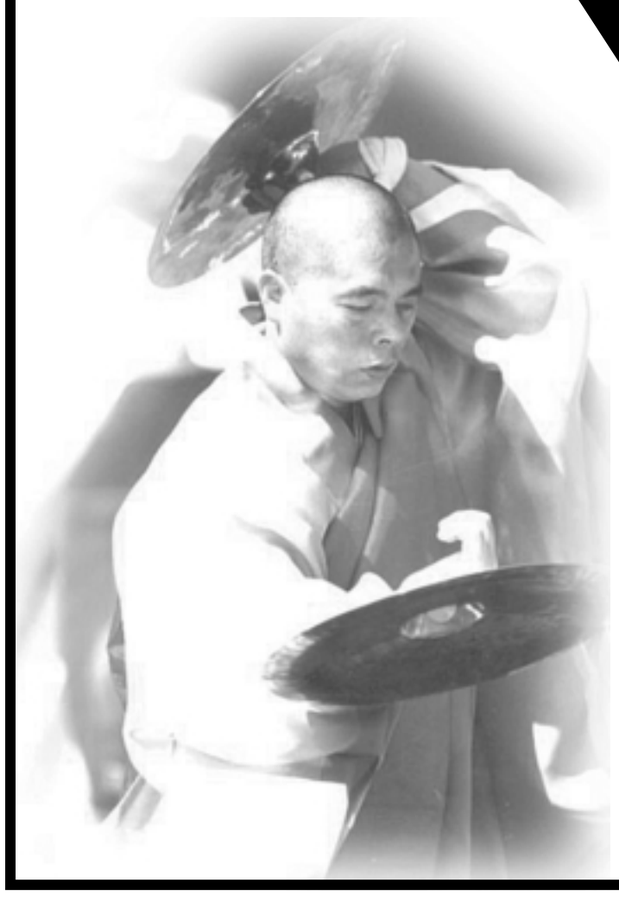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6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교 수 진
일초스님 직강 / 강사 : 원경스님 · 지오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 '행복'

[다도 포교사 김미려 원장]

한겨울,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신 기분이다. 맑은 찻물 속에 수행자의 형형한 눈빛이 담긴 녹차. 2월 5일, 서울 봉은사 다도반 수료식에서 만난 김미려(58) 원장(다예랑 다도회)에게서는 녹차의 향취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다.

남양주 봉선사와 서울 봉은사의 다도반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김 원장은 스스로를 '다도 포교사'라 지칭한다. 사찰 다도반 두 곳을 비롯해 9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다예랑다도회, 인터컨티넨탈호텔 직원과 중국차 전문점 천재향의 티 소믈리에를 대상으로 한 강의까지. 그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차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도 포교사'란 호칭에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국차인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이지만, 차와 인연을 맺은 사연은 평범하기 그지없다. 80년대 초,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잠이 많아 걱정'이라고 고민을 털어 놓자 담임 선생님이 "차를 마셔보라"고 권했다. 차라고 해봐야 국산 티백 녹차 밖에 모르던 시절, 김 원장은 '차'라는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갔던 절에서 한두 잔씩 얻어 마시던 그 '맛없는 물'이 그의 인생 2막을 열게 해 준 것이다.

"당시 궁중요리전문가 故 황혜성 선생님께 요리를 배우며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차와 녹차가 같은 찻잎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이후 화정다례연구원 신운학 원장님께 차를 배워 자그만 차회까지 열게 됐어요."

호기심과 취미로 시작했던 차 생활은 그에게 '차 문화 포교'라는 사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차 문화 전파를 위해 1990년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150여 평 규모의 전통찻집 '다예랑'은 국내 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러야 하는 차계의 사랑방이 됐다. 차와 다구를 파는 것은 물론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다도교실도 운영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차의 종류부터 다기 사용법까지 전부 알려드렸어야 했어요. 그래도 '차를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손님에게 말을 해야 했던 탓에 성대 결절 수술까지 했던 김 원장은 2001년에는 서울 북촌에 '다담선'이라는 찻집을 냈다. 다예랑을 통해 차 문화를 대중화했다면, 다담선에서는 국내외 명차와 보이차를 소개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다예랑' '다담선' 운영하며 차 포교 앞장
사업 정리 후 불교·茶 공부 삼매에 빠져
"차를 어떤 마음으로 마시는지가 중요해"
손녀 재롱 볼 여유없이 포교사 고시 준비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활은 즐겁고 환희심이 나기는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만큼 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와 부처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다예랑과 다담선을 정리한 김 원장은 남들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던 만큼 더 부지런히 배움의 길을 걸었다.

짬이 날 때 마다 경전 강의를 들었고 한국차인연합회 다도정사 과정도 수료했다. 2005년에는 중국에서 실시하는 차 품평원 자격시험에 도전해 중급 품평원과 다예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봉은사 다도반 김남희(34)씨는 이런 김 원장을 "진정한 외유내강"이라고 평한다. 평소 얼굴에 웃음 떠날 일이 없는 그지만, 다도 강의를 할 때면 그 누구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 사범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무명옷만 입도록 하고 선후배 관계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훈습(薰習)이라고 하지요. 차인들에게는 '몇 년 동안' '어떤 차를'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마셔도 '어떤 마음으로 마시는지'가 남을 뿐이지요. 저를 비롯한 차인들 모두 바깥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차의 향취가 서서히 묻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의 정신이 아닐까요?"

2005년부터 봉은사와 봉선사에서 다도반 강의를 맡은 것도 이러한 '차의 정신'을 알림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다.

"차회를 하며 이웃 종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시며 저에게 불교에 대해 물어보곤 하시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럴 때 마다 제 자신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김 원장은 7살 손녀의 재롱을 보며 여유를 즐기는 대신, 포교사 고시 시험문제집을 붙잡고 있다. 내년에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일주일에 네 차례 사찰 다도반을 지도하고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와 국어고전문화원(원장 윤경혁)의 차고전연구반, 불교전통문화원(원장 선혜)의 점다례법, 이시미문화원의 <논어> 강의까지 듣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김 원장.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 원장에게서 배어나는 차의 향기는 끝없는 자기 개발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김미려 원장은 "차인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차를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사진 맨 위) 2월 5일 서울 봉은사 다도반 중급 수료식에서 수료장을 전달하는 김 원장. 제자들에게는 엄한 스승이지만, 평소엔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봉은사 다도반의 불수선차 시연모습.(사진 맨 아래)

대원문재현선사/역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광주선원 ☎ 062)944-4088 3월 18일 선문염송
부산선원 ☎ 051)545-2460 3월 25일 반야심경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8> 덧없는 세월의 불꽃

늦가을 곱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찬바람에 휘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흔히 사람들은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여 '무상'하다고 말한다. 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중병에 걸리거나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슬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여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세간에서 허무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무상이라 표현은 본디 절집에서 나온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질 것이므로(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이 영원불변한 것 인양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 뒷날 이 집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괴로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선가귀감> 58장에서 말한다.

佛云 無常之火 燒諸世間 又云 衆生苦火 四面俱焚 又云 諸煩惱賊 常伺殺人 道人 宜自警悟 如救頭燃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 하셨고, 또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하셨으며, "도적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라고도 하셨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서둘러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무상(無常)'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늘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법이 인연이 모이면 생겨났다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므로 영원불멸할 실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우리가 죽고 난 뒤 긴 세월 속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임을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四大)의 인연이 흩어지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흡사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덧없는 세월의 불꽃이[無常之火]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세상조차 허깨비와 같은 것인데 중생들은 그 안에서 덧없이 사라질 몸과 마음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온갖 고통을 불러들인다. 몸에 집착함으로써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 있으며,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여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애별리고愛別離苦)을 받고, 원한과 증오심을 떨치지 못하니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원증회고怨憎會苦) 받으며, 갖고자 하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고통(구불득고求不得苦)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여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시비 분별로써 거기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이다. 중생들을 애태우는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애태우는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번뇌는 수행자의 공부를 방해한다. 이 번뇌는 '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생명과도 같은 지혜 곧 법신(法身)'을 손상시키므로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적에 비유하여 '번뇌적(煩惱賊)'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도 "도적처럼 남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번뇌들이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각성하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서둘러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身有生老病死 界有成住壞空 心有生住異滅 此無常苦火 四面俱焚者也

몸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이 있고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허망함이 있으며 중생의 마음에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무상함이 있다. 이 몸은 죽어지고 세상은 허물어지며 중생의 마음은 덧없이 변해버리니 덧없는 이 고통의 불길들이 다함께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다.

번뇌는 법신 손상시키고 남의 생명 앗아가니 머리에 붙은 불 끄듯 간절하게 공부해야

사람들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괴로운 과정을 한마디로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한다. 많은 인연이 모여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일정기간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허물어져 사라져 가는 허망한 과정을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한다. 중생의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 잠깐 그 마음이 지속되다 또 바뀌고 사라지는 무상한 모습을 생주이멸(生住異滅)'이라고 한다. 영원불변할 것처럼 여기었던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이 '무상'이다. 본디 없던 것이 인연이 모여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다 아울러 '무상'이라고 한다. 크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무상한 세월의 불길이 사방에서 훨훨 타올라 젊음도 아름다움도 총명함도 앗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謹白參玄人 光陰莫虛度

삼가 아뢰노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여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현(玄)'은 깊고 깊은 진리이므로 '참현인(參玄人)'은 깊은 진리를 찾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음(光陰)'에서 '광(光)'은 빛으로서 환한 대낮을 뜻하고 '음(陰)'은 그늘로서 어두운 밤을 뜻한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일년이 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광음'이다. 원효 스님은 일찍이 <발심수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후학들을 경책하셨으니 스님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겨 수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몸은 어느 날 홀연히 흩어지고 말 뿐 오래 보존될 것이 아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라 어느새 내일 아침이 되는구나!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 금방 밤낮이 지나가고,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바뀌어 빠르게 한 달 그믐이 지나가는구나. 끊임없이 한 달 한 달이 바뀌어 홀연일 년이 되고, 끊임없이 한 해 한 해가 바뀌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구나. 부서진 수레는 굴러 가지를 못하고 늙은 노인은 공부를 할 수가 없도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몇 생을 이 공부를 떠나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려고 이번 생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느냐?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리니 뒷날 받을 몸을 어찌하려느냐? 우리의 공부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겠느냐?"(四大忽散 不保久住 今日夕矣 頗行朝哉, 時時移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破車不行 老人不修 臥生懈怠 坐起亂識.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不修. 身必有終 後身何乎. 莫速急乎 莫速急乎)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무문관

최근 발간된 <문 없는 문, 빗장을 열다>가 불교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무문관(無門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무문관은 화두를 들고 문밖에 나오지 않은 채 하는 수행을 통칭한다. 국내에서는 계룡산 대자암, 제주 남국선원 등 몇 곳에서 무문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문관>은 화두 타파를 위한 처절한 수행을 이르는 한편 화두들을 모아놓은 책 <무문관>을 말하기도 한다.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이라고도 불리는 <무문관>은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 혜개 스님이 48개의 화두를 모아 엮었다.

이를 공안48칙(公案四十八則)이라고 하는데 제1칙이 '조주무자(趙州無字)'이다. 이 화두가 나머지 47칙을 아우르는 최고봉이라고 수행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주무자에서 무문 스님은 '무'를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이라 부르고, 이 일관을 뚫고 나아가면 몸소 조주로 모실 뿐 아니라 역대 조사와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하며 더불어 견문을 나누는 즐거움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조주의 '무'는 유무의 분별을 끊은 절대적 '무'를 가리키며, 깨달음의 절대 경지를 '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문관에는 이 '무자' 탐구가 전편에 걸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문관 화두를 들고 수행자들은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에 든다. 강지연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8·끝>

겨울여행과 마끼 교수

이번 겨울은 필자에게 유난히 외국 여행이 많은 계절이다.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는 과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에너지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매일 먹고, 입고, 사용하는 일용물품이 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 특히 WTO 체제 내에서 물품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낭비의 결과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가 방사하는 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긴다. 마치 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아둠으로써, 자동차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구 온난화는 남 · 북극의 얼음을 녹게 하여, 얼음이 태양열을 다시 방사하는 양을 줄임으로써 지구를 더욱 덥게 만들 것이다. 오랫동안 자연이 만들어 왔던 순환 시스템을 순식간에 바꾸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인류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 보살심 지녀 불성이야말로 곧 '우주심'이라는 것 깨닫게 돼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 뉴캐슬에 있는 더햄대학을 방문한 필자에게 그 대학의 물리학자는 석유를 사용하는 대신 바다에 무한히 존재하는 디트륨분자를 이용한 범세계적인 핵융합 프로젝트인 '아이서'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엄청난 크기의 자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흘리기 위한 초전도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실에는 지구에서 최고 측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젊은 학자가 와 있었다. 거대한 핵융합 장치가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자금과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 또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류의 문제를 풀기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지구 곳곳에서 나누어 협력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밤낮없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눈에서 보살의 마음을 본다. 모두가 보살과 같은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 인연의 법칙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이들이 모두 아름다운 인드라망의 그물에서 서로 의미를 가지면서 존재한다는 불성의 의미와 이 불성이야말로 궁극적인 우주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깨닫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저녁식사를 같이한 흰머리가 성성한 일본계 미국교수인 마끼 교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잊을 수 없다. 일본 첫 노벨 수상자인 유가와 교수의 제자였던 이 교수는 우주 본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그마에 걸리지 않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였다.

회자정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가. 이제 칼럼을 접을 때가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노기술부터 생명공학까지, 그리고 반도체 기술부터 통신 기술까지 현대과학기술을 다루면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불자의 눈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한 사람의 독자라도 이 글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면 필자의 행복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우주 전체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 (교재비만 부담)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줄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 부터 □ 입학일 :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정무 스님 (석남사 회주)

큰 길에 나와 보니 설 명절을 전후해서인지 자동차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심의 생활이 이력이 나건만 어디를 가나 마음과 육체의 쉴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생각나는 곳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절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절은 뭇 사람들의 의지할 곳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휴식처 기능도 한다.

안성 서운산(瑞雲山, 547m) 자락의 석남사. 마음의 휴식을 원하는 수도권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안성시에서 313번 지방도를 타고 마둔호수 지나 상촌 마을 뒤에서 절로 이어지는 길이 나온다. 길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있어서 청량감을 준다.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상쾌함을 주는 호젓한 산길을 걷다보면 금광루(金光樓)가 나온다. 절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2기의 석탑(향토유적 제19호)과 보물 제 823호인 영산전이 눈에 띄고, 고개를 더 높이 들자 급경사를 이룬 계단의 끝에 대웅전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다. 회주 정무 스님이 주석하는 중심당에 들어서자 스님의 따듯한 미소만큼 햇빛이 따사롭게 비춘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과 사람사는 이치에 대해 여쭤보았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마음을 수련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얘기를 들어보니 건강을 헤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건강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다 더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이고 재산이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음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의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성인 것입니다.

그럼 수행은 무엇일까요.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마음관리 방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만4천 경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을 살다보면 남을 이기는 것 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달마혈맥론>에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라. 부처는 경(經)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戒)를 가지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킴도 범함도 없으며, 선과 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겠지만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동안거 기간이라 많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행중입니다. 그러나 불자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좌선위주의 움직이지 않는 정중선(靜中禪)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동중선(動中禪)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간화선이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얻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기기를 세세생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불법입니다. 불자들이 봉사하게 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간의 문제가 커져간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붕괴의 원인은 인간의 방탕에 기인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남편과 주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녀교육 등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개인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9조원을 쏟아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거 별로 보탬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인 효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토인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류사에 기여할 것은 효 문화 선양이라고.

몇 년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와서 효 문화를 보고 감명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보니 놓쳐버렸지만 지금이라도 효문화를 회복할라 치면 우리의 피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원 청정 광명의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으면 수행도 봉사도 나날이 즐거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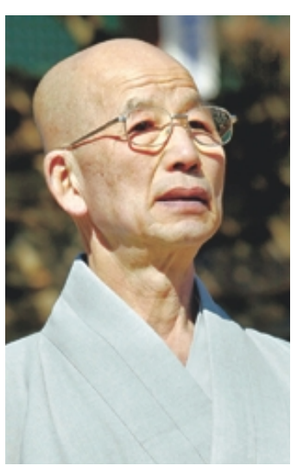
항상 암시를 하세요.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며 곧 보살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원해 보십시오.

‘네 항상 보리심을 발하여 법과 계율을 지니고 또한 자비심 내어 세상 중생을 보호하리라. 고운 말과 이익되는 일로 중생을 교화하고 또 함께 법을 말하여 착한 행 닦아가게 하리라. 팔풍 오욕 번뇌에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세상법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의 길잡이 되리라.’

글= 김원우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 “아무리 훌륭한 간화선도 생활과 떨어져 있으면 의미없어 마음 잘 다스려 세상 위해 헌신 하세요”
>
> 선지식을 찾아서 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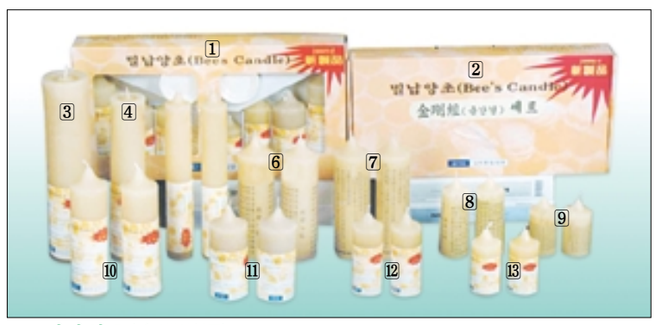
정무 스님은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59년부터 신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을 고안해 실행했으며, 1968년 영주 포교당에서 ‘신도 수련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정무 스님은 자신에게 엄격하다. 출가이후 지금까지 매일 새벽 3시면 기상하고 4시 예불, 5시 참선, 6시 공양, 7시 운력, 8시 공부..., 이런 식으로 1시간 단위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 시간표를 엄수한다.
또 행자를 엄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신도교육에도 철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일정정도 공부를 이수하면 신도들에게 부모자격증, 부부자격증, 자녀자격증을 줄 정도다. 최근에는 평생교육과 노후준비 현실요법을 85쪽 분량으로 수록한 <마음공부>를 펴내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 (4)

묻되, 아직도 쌀 자루가 무거우냐?
답하되,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경허 선사와 만공 스님이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만공 등의 쌀자루에는 쌀이 가득했다. 길은 먼데 몹시 무겁고 피곤했다. 선사가 만공을 돌아보며 말했다.

"무거우냐?"

"예."

"그러면 내가 무겁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줄테이니 너도 따라 하거라."

그러자 만공은 귀가 솔깃하여 "예, 스님" 하며 대답했다.

선사는 마침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젊은 아낙네의 양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에그머니나!"

여인은 비명을 지르고 물동이를 떨어뜨리고는 마을로 달려갔다. 이 소문이 곧 마을에 퍼지고 급기야는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나왔다.

"저 땡중 놈들을 잡아라!"

선사는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 있고 어안이 벙벙하던 만공은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기 시작했다. 이윽고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경허 선사가 말했다.

"아직도 무거우냐?

"그 먼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재주가 어떠냐? 무거움도 잊고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으니 말이다."

유명한 이 선화(禪話) 역시 무애자재한 행위를 통해 제자에게 심법(心法)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경허 선사 특유의 심지법문(心地法門)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혹시나 깨치지 못하고서 먼저 막행막식(莫行莫食)하는 무애행부터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법을 비방하는 자일뿐이다. 또한 단순히 파계(破戒)했다는 이유만으로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비판하는 것 역시 마치 '대통 같은 소견으로 비방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큰 코끼리는 토끼 길에 노닐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위의 선화는 무겁고, 가볍다고 하는 우리의 느낌이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깨우고 있다. 마음속에 '한 물건(一物)'도 없다면 무겁다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발붙일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때문에 이 선문답은 2조혜가 스님이 달마 대사를 찾아가 "마음이 불안하니 안심(安心)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법을 청했을 때, 달마 대사가 안심법문을 베푸는 장면과 흡사하다. 달마 대사가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에게 안심을 주리라"고 했을 때, 혜가 스님은 "마음을 찾아 (팔까지 자르며)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나는 이미 너를 편안케 하였다"고 일깨우는 장면이 그것이다.

무아자재한 행위 통해 심법의 이치 깨닫게 하는 경허 선사의 '심지법문'

불안하거나 무거운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 찾아본들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마치 '토끼 뿔'이나, '거북 털'처럼 허깨비로만 존재한다. 보고 듣고 감각하는 대상들 역시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일체의 합이 있는 법(有爲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불안하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허둥대거나 고통스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일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하여 두 가지가 텅 비어지면 이를 이름 하여 참다운 참회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일어남과 사라짐' 알아차려 갈애끊기

몸 느낌 마음 법 네가지 대상의 '무상' 깨달아 열반 증득
한국위빠사나선원 '12연기 강좌' 인기…3월에도 개강



"수행자는 어떠한 느낌(受)이 일어나든 그 일어남(生)과 사라짐(滅)을 알아차려서 느낌에서 갈애(渴愛)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느낌을 무상(無常)으로 알아차릴 때 갈애가 일어나지 않으며, 갈애의 소멸이 곧 도(道)입니다"

2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호불교문화원 1층에 자리 잡은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는 선원장 묘원 법사의 '수행자를 위한 12연기(緣起) 강좌'가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회향되었다. 묘원 법사는 '범부와 아라한에게 미치는 느낌이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마지막 강의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의 알아차림(念, sat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의 전설적인 고승 모곡 사야도의 말을 인용하며 "붓다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곳은 고결한 황금좌(黃金座)가 아니라, 갈애가 느낌으로부터 잘려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최승의불(最勝義佛)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말했다. '12연기(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無常)을 알아차려 갈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기법에 대한 강의와 실참을 해온 셈이다.

12연기는 흔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의 핵심으로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그저 교리적인 이해가 있을 뿐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묘원 법사가 실참과 면담을 곁들여 지도한 이번 12연기 강좌는 사념처(四念處), 즉 몸(身, 몸의 움직임) · 느낌(受, 감각) · 마음(心, 마음의 움직임) · 법(法, 생각의 대상)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12연기라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확고히 해가는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수행과정이었다. 묘원 법사는 "역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은 모두 사념처와 12연기였다"며 "많은 분들이 12연기를 통한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사견(邪見)을 제거하고 빠르게 공부의 진척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의 '수행자들을 위한 12연기 강좌' 종강시간 수강생들의 실참 모습. 오른쪽 사진은 열강하는 묘원 법사.

마침, 이날 강좌에서는 30여년이나 간화선 수행을 해온 재가 수행자가 처음 강의를 듣고 묘원 법사와 1대1 면담을 가졌는데, 서로가 좋은 느낌을 가졌다. 칠순의 그 수행자는 처음 위빠사나 강의를 들었지만 큰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동안 품었던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 위빠사나 수행 단체들이 몸과 호흡관찰을 위주로 한 순수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반면,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는 마음을 보는(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달마어록에 "마음을 보는 한가지로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는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이란 유명한 말이 있다. 달마 대사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 달라고 말하던 혜가 스님이 결국 "그 마음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고 실토한 것처럼, 마음은 보려야 볼 수 없지만 마음을 관(觀)하는 것은 남 · 북방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간화선이나 심념처 위빠사나가 모두 마음을 보는(알아차리는) 공통점이 있기에, 큰 괴리감 없이 이심전심이 된 것이다. 때문에 심념처 수행은 간화선-위빠사나 수행의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렇다면 심념처란 어떤 수행법일까.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알아차린 마음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찰나생(刹那生) 찰나멸(刹那滅)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일상 중에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 수행이다. 물론 수행 시에는 몸, 느낌, 마음, 법 등 사념처의 대상 중에서 하나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함께 작용한다. 마음은 미세한 것이기에, 먼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충분히 한 뒤에 집중력이 생기면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다.

묘원 법사는 심념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이 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서로 다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항상 뒤에 일어난 마음은 새로 일어난 마음입니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조건'이지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無我)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무상과 괴로움(苦)과 무아를 보아야 사라지며 그중에서도 무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집착이 끊어지고 더 높은 의식수준을 얻게 됩니다."

대상의 모양(相)을 보지 않고 '실재의 성품'(Paramattha)을 통찰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사물의 본성을 바로 알아 집착을 끊게 되며, 궁극의 열반(탐진치 삼독의 소멸)에 이른다는 것이다.

묘원 법사는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거해 스님으로부터 근본불교를 접한 1세대 남방 선(禪) 수행자이다. 1996년부터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와 쉐우민 센터에서 7년여간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보는 법'을 알게 됐다는 그는 선(禪)과 심념처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깨달음에 목마른 수행자를 인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위빠사나선원은 3월 6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 오후 2~5시 '12연기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반'을 진행한다. (02)512-525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구미 인적사 철야참선
매월 넷째 주 토 · 일 철야참선을 한다. 매월 첫째주 다라니 주간, 둘째 주 <금강경> 주간, 셋째 주 참회 주간으로 정진. (054)431-1192

통도사수련회총동문회 수련회
'반야심경 사경을 통한 불심 키우기' 주제로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7시까지, 암자순례, 법문, 사경, 정월대보름 달빛 포행, 참선, 3보1배 등 진행. (010)9486-6501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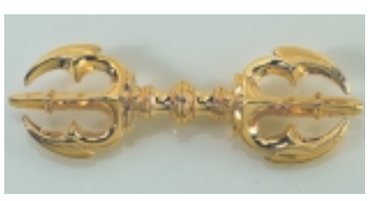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④ 핸들은 내가 잡고 운전은 부처님이…

길 위의 불평분자

"아빠, 웬일이세요? 저 차가 반칙해서 들어왔는데 화도 안 내시네요."

중학생 아들이 신기한 듯 말한다. "응? 아, 아빠가 변했지" 하며 K씨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내곤 했었다. 출퇴근 시간에 길이 심하게 막히는 곳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 참기가 어려웠다. 저절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중얼거리게 되곤 했다. 때로는 경적을 심하게 울리거나 차 안에서 주먹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양보하기가 싫어 밀어붙이다 접촉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았다. 그런 때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쫓아가 뭐라 퍼붓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혔다.

주말이나 명절에 지방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종종 정체된다. 누구나 시간이 아까운데도 자기만 빨리 가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차들을 보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다. 고속도로는 위험해서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던데 왜들 규칙을 안 지키는지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운전이 고행입니다, 고행."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쌓여 피곤했다. 외국에서는 심하면 총까지 쏜다더니 그 심정이 다 짐작이 되었다.

길 위의 보살되기

어느 날 도반에게 침착하고 평온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운전도 역시 마음 다스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다섯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출발하는 때가 중요하다. 출발기도를 하는 것이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면서 마음 깊이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 부처님이 운전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사실 사고 없이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전에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었다.

둘째, 가다보면 길이 정체될 수도 있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초조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냉철히 인정하는 것이다. 일일이 끄달리면 결국 나만 손해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반칙운전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가장 힘들다. 그러나 역시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과 응보, 상대가 잘못하면 그 과보는 그의 몫이다. 그런데 왜 내가 불필요한 업을 짓나. 굳이 힘들게 욕하거나 화내면서 업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내 할 도리만 하면서 마음 속 부처님을 부른다. 넷째, 가능하면 양보한다. 끼어드는 차 혹은 차선 변경하려는 차가 있다면 무조건 최대한 양보해 준다. 이것은 쉬운 '보시'이다. 정 양보하기 싫으면 '내가 지금 해주었으니 다음에 나에게 해주겠지. 내가 급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자.'하는 마음을 가진다. 간혹 K씨도 급히 끼어들어야 할 때가 생긴다. 예전엔 그냥 상황 봐서 했다. 이제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자, 어느 차가 오늘 복을 지으시려나. 양보하실 보살 차 나오세요.' 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시도한다. 결과는 신기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쉽게 양보를 해 주었다. 마지막, 도착하면 시동을 끄며 반드시 회향기도를 한다. '무사히 도착하여 감사합니다, 운전 잘해 주신 부처님.' 이제 K씨는 화 내지 않고 평정심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정진을 계속 하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 편하게 운전하니 몸의 피로까지 놀랍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길 막힌다고 화내면 상황 달라지나?

신호위반 · 끼어들기…결국 손해는 나에게 오는 걸

"나 하나 버리면 길 아닌 것 없다" 명심해야

나의 길은 어떻게

K씨는 자기 중심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 했고 상대에게 화를 내며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가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를 버리면 길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 도(道)는 오늘 나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부터 시작됩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참좋은유치원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지난해 12월 한국불교대학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는 3월 5일 참좋은유치원을 개원한다,
2월 14일 인가를 받은 참좋은유치원은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 모집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참좋은어린이집은 3~5세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 (053)472-0256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염불정진법회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가 3월 17일 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오후 8시~11시, 이번 정진법회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관상염불, 정토세계를 관하는 관념염불 등을 하게 된다, (031)723-9797

서울 법장사 건봉사 사찰순례
서울 법장사가 3월 14일 오전 7시 강원도 고성 건봉사로 정월사찰순례를 떠난다, 건봉사는 조선 세조대왕이 불교 원담으로 정하고 어실각을 건립한 성지이다, 동참회비는 3만원,
한편 영산불교학교 교리반 38기 강좌는 15일~7월 19일까지 운영된다, 불교예절에서부터 교리, 부처님의 일생, 참선, 계율 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02)971-0303

법왕사 33인 고승초청 법화경 대설법회
대구 법왕사가 3월 7일부터 33일 동안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모시고 <법화경>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3월 7일 입재하는 <법화경> 대설법회는 첫 날 <법화경>의 총대의를 시작으로 28일간 제1품에서 제28품까지 강의하고 30일째에 다시 한번 <법화경>의 총대의를 살펴본후 이틀간 법화경 약찬게를 설하는 것으로 33일간의 대설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053)766-3747

부처님 감사합니다

빈자일등, 참회의 등불 (상)

이종구 경남 마산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구업진언을 외며 구업을 참회할 때면, 다시는 구업을 짓지 말자고 숱하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다시 구업을 짓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포건조일을 떠올립니다.

평소 제 아무리 깨끗하게 이부자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해도 막상 햇볕에 모포를 말렸다가 둘씩 짝을 지어 모포의 양끝을 불잡고 털어내면 언제 그런 먼지가 묻었는지 밀가루 포대를 털듯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소에 마음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하려 해도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 닦는 공부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림: 문병성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다름 아닌 지난날 저 자신의 모습이기에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가 없어, 아직도 어둠과 미망 속에 헤매고 있는 동료수용자들에게 희미한 빛이라도 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아래 참회의 글을 열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날 찾아온 불행의 그늘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색 담장과 쇠창살로 둘러쳐진 이 부자유의 공간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범죄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착실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랬기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무기수로서 끝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남의 일로만 여겨질 뿐 도저히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역시도 제게 닥친 이 불행을 저주받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일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면 그것을 당연한 응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저 자신이 애꿎은 운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운명의 탓으로만 돌리자 그럴수록 제게 닥친 현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포자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맹구우목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구제불능의 문제수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쌓아왔던 악업의 실체를 깨닫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시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삼아오신 부모님 슬하에서 2남 2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풍족하지는 않아도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아버님의 농사일만으로는 집안을 꾸려나가기가 벅차 부득이 어머니께서 서울로 야채장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농사와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오늘 흘린 땀 한 방울이 내일의 미소가 되리라는 믿음 아래 열심히 노력하여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뒤 군에 입대하여 3년간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귀향하였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보니 조상대대로 농사만을 지어오던 고향 땅에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통에 농사밖에 모르던 사람들의 손에 꿈도 꾸지 못했던 큰돈이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순박하기만 했던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 사치와 향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 2세라도 된 듯 사치와 방탕의 늪에 빠져들었다가 가진 돈을 순식간에 모두 날려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이웃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무렵 한 기업체에 입사한 저는 학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땀 흘리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곧 결혼을 하여 두 아이까지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한 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마다한 채 집과 직장만을 오가다시피 하던 저에게 1994년 12월 28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 (계속)

불교명상지도자양성




보현 김옥자 박사
(세계불교 명상센터 원장)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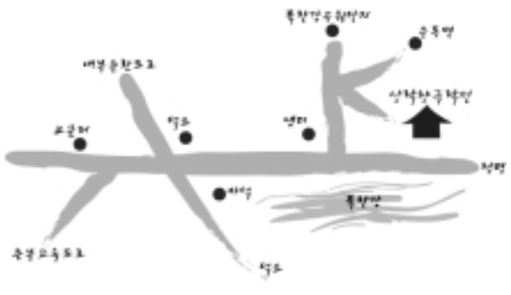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크리닉 – 제 1차 3개월
② 전문과정 : 견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뎀브렐스님
(몽골 다시쵸링)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 계 불 교 명 상 센 타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친구야, 큰 달 맞으러 가~자!



전국 대보름 행사 풍성…민속놀이 체험 통해 아이들엔 교육도

"야, 윷 진짜 크다. 우리 던져 보자!"

2월 18일 민족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 서울 운현궁에서는 '설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한창 진행됐다. 민영이(서울 계동초등2)도 친구들과 함께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제기차기 · 윷놀이 · 투호 등 운현궁 마당에 펼쳐진 놀이판에서 어린이들은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어린이들뿐 아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팽이치기에 열을 올렸다. 널뛰기를 즐기는 가족들도 있었다. 명절놀이가 즐거움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가족들에게 '통'한 셈이다.

설 연휴가 끝나버려 아이들에게 신나는 전통놀이 마당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곧바로 다가오는 우리의 큰 명절, '정월대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음력 정월(1월) 15일, 올해는 3월 4일이 우리가 1년 중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다는 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은 농경민족이었던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였다. 대보름의 민속놀이 자체도 농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지신밟기'는 나쁜 땅의 기운을 밟고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뜻으로 풍물패가 집집마다 축원을 했던 마을 단위의 행사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은 혹시나 논에 있을지 모를 병충해를 막는다는 의도가 있다.

1년 중 가장 큰 달 볼 수 있어
지신밟기 등 하며 가정 축원
부럼 깨고 한 해 건강 기원
민속놀이 통해 아이들에 교육도

가정에서는 호두 · 땅콩 · 밤 등 딱딱한 '부럼' 깨물기, 보름달 보며 소원 빌기, 오곡밥 지어 먹기 등을 통해 질병을 이기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사전 지식을 챙겼다면 이제 대보름을 즐기는 일만 남았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주목해보자. 올 대보름, 우리 아이에게 대보름 풍속에 대해 알려주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바다에서 달맞이를 하고 싶다면 해변도시를 찾아보자. 그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에서 펼쳐지는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는 매년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촛불제 등을 준비한다. 거대하게 솟아오른 해변의 불길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제주도만의 특이한 지형인 '오름(기생화산)'에서 대보름을 즐길 수도 있다. 제주 '대보름들불축제'에서는 새별오름과 이달봉을 중심으로 한 오름 생태체험은 물론, 말사랑 싸움놀이 및 마상마예공연, 행운의 돼지몰이경주, 소원기원 돌탑쌓기, 잔디썰매타기, 불깡통 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강원도 원주시 매지농악보존회가 마련하는 윷점치기, 달토끼 떡메치기, 매지농악가락배우기, 횃불놀이, 다리 밟기 등도 참여해 볼만하다.

전남 전주에서는 전주시립국악단이 펼칠 우리소리 한마당이 기대된다. 심청가, 풍물놀이 등 우리가락 한마당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어서다.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매년 달오름축제와 풍습놀이가 준비된다. 올해 역시 야외 문화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등 관객과 하나 되는 축제의 현장이 열릴 예정이다. 리고 열심히 공부할래요."

글=김강진 객원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달맞이 행사 진행하는 곳

장소	행사
서울 국립극장 (02)2280-4115	달집태우기, 소원빌기 등
서울 국립국악원 (02)580-3333	야외 대보름 풍습놀이 등
부산 해운대 바닷가 (051)749-4076	촛불제, 온천제 등
대전 중구 (042)606-8282	굿판, 길놀이 등
강원도 원주시 (033)738-5436	소원지쓰기, 떡메치기 등
국립전주박물관 (062) 521-9041	전통놀이마당, 소원쓰기, 윷놀이 등
전주한옥마을 (063)284-0570	안부 엽서쓰기 등
전북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063)254-2391	심청전, 판소리, 길놀이 등
전북 남원시 인원면 (063)625-6131	풍년기원 고사지내기, 기체조 등
충북 괴산문화원 (043)832-3588	달집태우기 통일기원제 등
제주시 봉성리 새별오름 (064)728-2751	말사랑싸움놀이, 돌탑 쌓기 등


국립극장의 줄다리기. 사진제공=국립극장


운현궁에서 널뛰는 모습.


국립극장 풍물놀이. 사진제공=국립극장


해운대온천달맞이축제. 사진제공=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운영위원회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 · 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 · 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부산어촌민속관에서는

바다 어업을 주제로 낙동강까지 살펴볼 수 있다. 부산어촌민속관이 2월 23일 문을 열었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 배 모양으로 조성된 민속관은 바다 어업을 주제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 전시관과 구별하기 위해 낙동강을 주제로 꾸며 지역 어린이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3월24일까지 '생명과 문화의 발원 낙동강'을 주제로 개관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051)363-3333

강화 전등사 불교대학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입문자를 위한 기본과정과 중급 고급, 경전반도 운영한다. 입학원서 교부 및 안내는 전등사 종무소에서. 3월 6일까지.(032)937-0125,0025

대구수서소방서에서는

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성인 및 가족, 기관,단체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방서를 운영한다. 각종소방장비 사용체험 · 모의화재진압 · 소방안전학습 등의 화재안전교육, 기본 응급처치술을 체험하는 응급처치교육, 산악 ·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는 생활안전 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 신청(예약)은 전화로.(053)780-5246,5247

청소년경제체험센터에서는

초등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체험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주 화~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와 4시 3차례 운영되며 6월 30일까지 매주 접수한다. 홈페이지 (www.yezone.org)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02)3143-1822

한국일보사에서는

훌륭한 교육자를 선정, 수상하기 위한 한국교육자 대상 추천을 받고 있다. 교직 경력 15 년 이상의 초 · 중등 교사 · 교감 · 교장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현직) 대상이며, 접수 마감은 3월 16일까지. 원서 및 자세한 문의 홈페이지(www.hankooki.com)와 전화.(02)724-2613~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 년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각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 (작 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 (실 기)	시련/대령/관욕 등	화,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 (이 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 &무용 (이 론)	불교음악/ 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 교수진 : 김구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마일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이기봉(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심만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효성(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김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영산재 이수자)
한해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2. 응시자격 : 승려,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 합격후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입학 및 개강일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조광현(혜산) 김재운(선각) 조명환(효광) 오세균(보운) 박성호(처명) 변호근(춘광) 류지언(화산) 심 인(지허) 김혜숙(선혜) 한정미(해사) 신금자(주혜)

전수생(19명) 조보현(고담) 박현일(진현) 이주상(성진) 김광화(광호) 엄인용(인성) 김동찬(동인) 서준석(혜성) 이차복(혜명) 김태곤(만결) 김성욱(구수) 김근선(보덕화) 이영근(법일) 방한열(진원) 김창수(행준) 김민정(동환) 김규운(적광) 장완순(행범) 노명열(혜일) 박태수(광조)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는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을 공부해 보기로 해요. 발음은 비슷해도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잘 서지 않네요. 청아는 얼른 택시 운전수에게 "곱절곱절"하고 외쳤어요. 그래도 서지 않아요. 이번엔 언니가 "아저씨, 갑절갑절."하니 택시가 서는 거예요. 아마도 아저씨들이 평소에 "따블 따블"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었나 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청아는 웃었어요. 갑절이 곱절보다 많은데….

갑절– 어떤 수량의 두배
(예: 100은 50의 갑절이다.)
곱절–어떤 수량의 세배 이상
(예: 이 은혜는 나중에 몇 곱절로 갚겠다.

장사–물건을 파는 일
(예: 철수 아버지는 과일 장사를 하신다.)
장수–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
(예: 철수 아버지는 과일 장수이시다.)

몹쓸–고약한
(예: 우리 할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못 쓸–아무 쓸모 없는
(예: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못쓸 물건이라고 하셨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열정과 감동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괴테 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배경지식이에요. 아는 것이 많아야 논술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지식 '충전'에는 독서가 최고죠. 우선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책부터 읽으며 책에 흥미를 느껴보세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에 낭만주의의 물결이 고조되었던 질풍노도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괴테가 1772년 5월 베츨러에 있는 고등법원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소설의 모태를 이루는 샤를 로테와 그 약혼자 케스너르와, 유부녀 헤르트 부인에게 사랑을 하다가 실연을 당하여 권총 자살한 에루살렘을 알게 되죠. 그 실제적인 경험을 소재로 쓴 소설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괴테가 25세 때 쓴 이 소설은 금단의 사랑과 사랑의 열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금기되는 사랑은 그만큼 더 강력한 걸까요?

이성이 압도하는 현대인들에게 감성이 압도하는 베르테르의 사랑은 그래서 더 읽혀지는 지도 모르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하인도 장벽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고 미친 사람 역시 로테를 사랑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미쳐버린 것이죠. 이 둘의 인물 또한 베르테르의 또 다른 인물화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빨리 작품을 읽고 싶어지지요? 어느 책이든 자신이 직접 읽어보는 것이 최고지요. 아직 읽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잠깐 줄거리를 소개 할게요.

고향을 떠나 시골에 와 살던 베르테르는 정열적이고 다정다감한 감상적인 청년이었죠. 그가 어느 무도회에서 로테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죠. 그러나 로테에게는 출장 중이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게 되죠. 베르테르의 눈에도 그 청년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처럼 느껴지고 베르테르는 로테에

낭만주의 고조 시기 작품
당시 사회제도 잘 보여줘

대한 사모의 정에 고민하다가 떠날 결심을 하죠. 어느 공사관에 근무하나 관료주의와 고루한 계급의식에 견디지 못하게 되죠, 마침 C백작 집의 파티에서 공사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베르테르는 곧 퇴직하고 로테를 찾아가지만 이미 로테는 결혼을 했지요.

로테가 베르테르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자기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울 만한, 정숙한 태도를 잃는 일은 없었지요. 그러나 베르테르는 로테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격정을 자기 스스로 막을 수 없어 또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로테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죽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테에게 번역시 오시안을 낭독했을 때 두 사람은 용솟음치는 정열을 억제할 수 없어서 서로 꼭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지요. 로테는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이것뿐이에요. 다시 만나서는 안돼요. 용서하세요."라고 고통에 가득 찬 이별의 말을 남겨놓고 가버리죠. 다음날 베르테르는 여행을 하겠으니 권총을 빌려 달라고 알베르트에게 사람을 보내죠. 로테가 먼지를 닦아 건네준 총을 심부름 갔던 소년에게 받으며 "당신 손에서 죽음을 받아가지기를 원했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늘 입던 곤색 상의에 노란 자켓을 입은 채 1772년 12월 23일 밤 베르테르는 방아쇠를 당겼지요.

이 정열적인 연애소설은 나폴레옹1세도 전장에 가지고 가서 애독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소설이 나온 뒤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권총 자살이 늘어나고 유럽에는 '올백 머리'에 곤색 윗도리에 노란 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베르테르풍의 감정과 스타일이 유행되기 까지 했다고 하죠. 내부 세계가 풍부한 괴테의 눈에는 사회제도란 것이 속인들이 몸을 지키기 위한 제방처럼 비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에서 사랑이 무모하다고 느껴지나요? 열정적인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죽음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느껴보는 소설이에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컴퓨터 오락 끊을 수가 없어요.

Q: 저는 중 1남학생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열심히 공부하려는데 오락 때문에 전혀 집중이 안되요. 컴퓨터가 없으면 허전하고 미치겠어요. (ID:pruna0135)

A: 컴퓨터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어요. 컴퓨터를 보기만 하면 저절로 손이 간다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쳐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
'나를 스스로 돕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 성격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일단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컴퓨터와의 전쟁을요. 자신의 결심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획을 세워보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인간은 컴퓨터 선을 뽑아 놓고 지낸다던가, 시험기간 동안 컴퓨터를 창고에 넣어둔다거나,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하겠다고 가족에게 다짐을 하고 실천해 보는 것 등도 방법이겠지요.
3. 그 계획을 잘 수행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줄 보상의 내용도 계획해보세요. 보상을 적절히 주는 것이 계획을 지키려는 마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과 수행 평가를 위해 표를 만들어서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4. 자신이 왜 오락에 빠지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신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서 그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오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오락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 자신만의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해결이 더 수월해 집니다.

(한마음 상담연구소)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억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 (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몹쓸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 팔 패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보급가 : 20만원

◆ 생활속의 수행, 수행속의 생활 ◆
부산법기불교대학 제 10기 모집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수행단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부산법기불교대학 제 10기 과정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 개강 : 〈야간반〉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저녁 07:00 -09:00)
〈주간반〉 2007년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00-12:00)
· 접수 및 문의 : 부산법기선원 (051-516-9104) www.bubkisa.or.kr
· 수강료 : 총 80,000원 (교재비 포함)

차례	강 의 내 용	비 고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 (결인관, 호흡관, 설관)과 염법	앉는 자세와 눕는 자세
4강	불교교리 –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수행문답
5강	산행–요처수행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호흡점검
7강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도반의 수행담, 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선배의 수행경험담	호흡점검, 반지식호흡
9강	수행의 단계–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	좌선/ 행선, 숫자 세는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상기의 극복(멜로디)	이근관, 안근관
11강	봉사활동	
12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멜로디연습
13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설문조사, 발원
14강	수료식, 선지식법문	

* 주.야간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 서울법기불교대학 일정은 서울선원(02-854-18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선원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 20m직진 →왼쪽 청룡빌딩 4층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육조의 설법이 '經'이 된 까닭은?

생동감 넘치는 '즉심즉불'의 가르침…법지 스님 '육조대사 법보단경' 역주



법지 스님



육조대사 법보단경
종보 편 | 법지 역주
운주사 | 1만 5천원

불교의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육성취법(六成就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들었는가를 밝힘으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부처님 친설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성취법과 무관하게, 부처님의 친설이 아님을 떳떳이 밝히면서도 '경'의 반열에 오른 것이 <육조단경>이다. 중국선종의 정법안장을 여섯 번째로 이은 혜능 대사가 소주 자사 위거(韋據)의 청으로 대범사(大梵寺)에서 설한 내용이다.

오늘날 선 수행자들이나 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필수과목'인 <단경>. 당(唐)대 이후 많은 선사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 출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돈황본과 덕이본, 종보본 등이 대표적으로 애독되어 왔다.

<단경>이 '경'으로 격상되고 누대에 걸쳐 선가의 필독서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육조 혜능의 가르침이 기존의 중국 선불교에 대해 '혁명적'이었기 때문이다. <단경>에 담긴 '혁명적'인 핵심 사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의 불성론(佛性論)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의 구별은 오직 깨달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자기성품을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 된다"라고 한다. 육조 혜능이 스승으로부터 '정법안장'을 이어 받는 대목에서도 "본래 어떠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있겠는가?"라는 게송으로 불성의 청정과 평등 이외에 어떠한 분별과 망상도 허용치 않는 성품의 자리를 선언했다. 즉심즉불의 정신은 천지만물의 희망이다.

두 번째는 '돈오견성(頓悟見性)'의 수행관이다. 즉심즉불이니 '부처'를 멀리서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다.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데 에둘러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단경>이 제시하는 수행관은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보아 깨닫는 것이다. 일순간의 일념이 자기 마음속에 현현하고 있는 진여본성을 깨달으면 한 번에 부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수행관을 육조 혜능이 혁명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자성자도(自性自度)'의 해탈관이다.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는 가르침이니, 앞의 불성론과 수행관을 통해 스스로를 해탈시키는 길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상을 <단경>에서는 "불법은 인간세상에 있고 인간세상의 깨우침을 떠나지 않는다" "인간세상을 떠나 보리를 찾는 것은 본래 없는 토끼의 뿔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중국 원(元)나라 종보(宗寶) 스님이 개편한 종보본 단경의 갖추어진 이름은 <육조대사 법보단경>. 내용이 풍부하여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생동감이 있고 문학적 색채가 농후하다.

현재 중국 남경(南京)대학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법지(法志) 스님은 "남경대 왕위에칭(王月淸) 교수가 펴낸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껴" 번역에 원력을 세웠다. 그러나 법지 스님은 왕위에칭 교수의 번역과 평석을 참고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곁들였다. 뿐만 아니라 <대정신수대장경>에 들어 있는 종보본 <법보단경>을 착실히 대조했고 덕이 스님의 '육조대사법보단경서'와 설숭 스님의 '육조대사법보단경찬' 종보 스님의 '발문' 등을 추가해 보다 포괄적으로 <단경>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승가와 계율 바로알기의 '지름길'

日 시즈카 교수의 '출가 세속의…', 초기불교 승단 상세히 설명

왕궁에서 숲으로 출가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출가는 수행의 시작이고 불교라는 위대한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출가가 불교의 시작인 이유는 교단의 형성과 유지에서도 잘 입증된다. 불교 교단은 불(佛) 법(法) 승(僧)이라는 요소 즉, 삼보(三寶)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승에 해당하는 것이 '출가 대중'이다.

출가대중의 집단, 승가는 한 사회의 섬이다. 그러나 그 섬은 절해고도가 아니라 속세와 소통한다. 부처님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을 좋은 수행처라고 했다. 승가집단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걸식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겠지만 승가집단과 세속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상징도 있을 것이다.

일본 하나조노 대학의 사사키 시즈카(佐佐木閑)교수는 "바른 승단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불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국가 전체에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라고 단언한다. 승가와 계율에 대한 바른 정의와 이해는 출자가와 속세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승가와 계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교를 논한다거나 바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에서 시즈카 교수는 초기불교의 승단과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초기 교단의 승단과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요해진다. 근본정신이 왜곡되지 않아야 변화의 기류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는 승단의 생활과 규율은 물론 각자의 소임과 그에 따른 역하과 책임 등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9장에서 '불교 승단과 여성'을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구니에 대한 차별과 '팔경법'은 물론 대승불교의 여성관까지 두루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사사키 시즈카 지음
원영 옮김
민족사 | 1만 5천원

석주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 생애

前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은 1995년 평소에 즐겨 법문한 내용을 월간 <법공양>에 '우리들의 부처님'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했다.

이 글은 주로 부처님의 탄생과 유년시절 · 출가 · 고행 · 중도수행 · 성불 · 초전법륜 등에 대해서만 상세히 다뤘다. 하지만 애초에 석주 스님이 조명하고자 했던 교단의 확립과 중생 교화하는 부처님의 전법 활동모습은 거의 싣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석주 스님의 입적 후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중생속의 부처님'이란 제목으로 월간 <법공양>에 연재했고, 이를 묶어 만든 책이 바로 <석가우리들의 부처님>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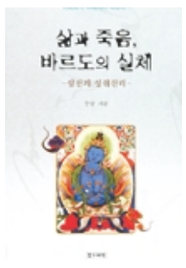
석가우리들의 부처님
석주 스님 · 김현준 지음
효림 | 7000원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어디?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삼신의 성취원리'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우리가 개념형성조차 할 수 없었던 '죽음'과 '중음', 그리고 '재생'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이를 법보화(法報化) 삼신으로 성숙시키는 금강승의 수행법들이 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밀교의 수행이론인 금강승의 가르침은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낯설고 생소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티베트 승원에서 전승되는 중요한 밀교 경론들과 그 주석서들을 인용해 티베트 밀교수행자들이 배우고 익히는 금강승의 수행법을 원형 그대로 해석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삶과 죽음, 바르도의 실체
중암 지음
정우서적 | 1만원

노건이 아줌마의 맛깔스런 이야기

조선닷컴 인기블로그에서 만남, 인연, 사랑에 관한 향기로운 글로 인기를 모았던 '본효 아줌마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책에는 재가불자인 노건이 주부가 삶속에서 느낀 겨자씨처럼 작지만 코끝 찡한 단상들이 수북하다.

저자는 책속에서 지금의 남편과 다음 생에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미움의 감정 때문일까?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는 저자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닐 듯 싶다. 좀더 읽어보면 명쾌한 답이 나온다. 인연이 되어 같이 산다는 것은 무언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해결할 숙제가 모두 풀려 인연이 아름답게 정리됐다면 굳이 다음생에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만큼 사는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화합해 '인연의 숙제'를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라는 저자의 조언을 접하면 웬지모를 자신감이 온몸에 솟구쳐 오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행복을 배달하는 서른아홉개의 겨자씨
노건이 지음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98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꽃비	원성	마음의 숲
5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혜명
8	꽃과 벌	청안	김영사
9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10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학과 나는 둘이 아니다”

3월 7~8일 명무명인전 열려, 김덕명 선생 ‘양산사찰학춤’ 진수 선봬



김문숙의 ‘대궐무’, 엄옥자의 ‘원향살풀이춤’, 김진홍의 ‘승무’.

‘학이 선비를 흉내 내는지, 아니면 선비가 학을 흉내 내는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하얀 도포에 갓을 쓰고 너울너울 날다 내려앉아 두렁 넘어 먹이를 쪼고 다시 날아오르는 몸짓들, 깃털처럼 가벼운 디딤새며 매무새는 영락없는 학의 자태다.’ 학산 김덕명(84) 선생의 ‘양산사찰학춤’을 본적이 있는 사람들의 탄성이다.

김씨의 그 고고한 춤사위를 3월 7~8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제 52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

“나는 단순한 학의 흉내가 아닌, 내가 바로 학이 되는 춤을 추구합니다.”라는 김씨가 60여년 춤인생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춤의 흥취가 담긴 즐거리와 가락, 장단을 한 치도 즉흥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춤판을 들여다보면, 무국적의 현란한 춤들과 어지러운 장식, 공연한 꾸밈새에 치우친 춤들이 판치고 있어 전통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의 춤은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김문숙 ‘대궐무’, 김진홍 ‘승무’ 등 원로 부터 신예까지 한무대서 공연

속인의 티가 나지 않는다. 이는 18세때 잠시 통도사로 출가한 김씨의 이력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김씨는 통도사에서 부목, 공양주, 행자를 거쳐 ‘고암’이란 법명을 얻은 후 당시 명무가인 경수 스님과 대응 스님으로부터 ‘지성승무’ ‘연등바라춤’ ‘사찰학춤’을 두루 전수받았다. 이렇게 김씨는 세간과 출세간 사이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워 오늘날 ‘김덕명’이란 이름 석자를 우리 전통춤세계의 최고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날 김씨가 선보일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후 앞마당에서 춘 춤으로 아직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호평받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날개짓과 다리놀림, 고개짓 등 섬세한 춤사위로 한 마리의 학이 돼 무대를 훨훨 날아다니는 김씨의 몸짓 언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 김덕명 선생 다음으로 최고령인 김문숙씨(80 · 예술원 회원)는 1958년 제1회 김문숙무용발표회에서 선보였던 ‘대궐무’를 재현한다. 구중궁궐 심처에서 오로지 임금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던 여인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진홍씨(73 · 동래한량무 준인간문화재)는 정중동의 움직임을 잘 표현한 민속춤의 정수(精髓)인 ‘승무’를 펼쳐보인다. 또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엄옥자씨(66 · 부산대 교수)는 한을 안고 흐느끼는 듯한 ‘원향살풀이춤’을 선보인다. 3월 7일 공연에서는 중진과 신예 중심의 춤이 펼쳐지고, 원로급들의 춤은 8일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02)2278-5452

김주일 기자



김덕명의 ‘양산사찰학춤’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④

사불산 묘적암

장인성 시인

나옹선사 사리탑은 고려적에 지었는데
탑 위에 지은 절은 어느 시절 암자인가

탑에도 절에도 이끼만 푸르르니
시퍼런 이끼는 또 어느쩍 세월일까



묘적암(妙寂庵)- 고려말의 고승 나옹선사(懶翁禪師)가 출가한 암자로 선사의 사리탑이 남아있다.
그림: 이상배 화백

니르바나 테마연주회 갈수록 인기

3월 8일 ‘이시우 박사와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

연주회때마다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는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테마연주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니르바나의 테마연주회는 불화, 경전, 천문학, 동화, 성지순례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한 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이야기와 선율을 함께 선사한다.

3월 8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는 ‘이시우 박사와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란 이색 주제의 음악회가 열린다.



2월 8일 ‘불화’ 주제 테마연주회에서 서연 스님이 플룻을 연주하고 있다.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 이시우 박사가 초청돼 별의 섭리와 연기의 법칙을 들려준다. 또한 이시우 박사의 별 이야기 중간에는 별을 주제로 한 이진구씨의 창작곡을 윤문숙씨가 해금 연주로 선사한다.

이외에도 6월 14일에는 ‘원성 스님이 들려주는 자연동화’, 8월 9일은 ‘해설이 있는 키즈 음악회’, 10월 11일 ‘이호신 화백의 부처님 성지 찾아가는 길’, 12월 13일 ‘본각 스님의 <화엄경> 읽는 풍경’ 등 다채로운 주제의 음악회가 마련된다.

테마연주회를 기획한 강형진 단장은 “지난해 6월 이호신 화백과 함께 한 첫 테마연주회 ‘인도이야기’와 두번째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이야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 올해도 기획했다”며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음악을 들려주다보니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아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02)718-4599

김주일 기자

아수라를 둘러싼 응징 담아 창작퍼포먼스 ‘카르마’ 공연

한국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무용극을 해외시장에 수출해왔던 무무컴퍼니(대표 권은정)가 ‘업(業)’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3월 3 · 4일 양일 간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열리는 창작 퍼포먼스 ‘카르마(KARMA)’가 그것. 자연의 흐름을 관장하는 5명의 남신과 6명의 여신이 탐욕의 신 ‘아수라’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충분한 볼거리도 이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중 하나다.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과 동양무술, 마술처럼 펼쳐지는 동양화시연 등이 빠르게 전개돼 관객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매우 신화적인 것도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③

대부분 다른 곡에 가사 붙여 사용

1930년대 - 1960년

이 시대는 일제시대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숨 가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문화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혹 있었다하더라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자료를 보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한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운문스님께서 필자에게 주신 ‘기록자료’가 하나 있다. 조학유 스님이 <불교>지에 연재한 악보들을 엮어놓은 자료다. 1948년에는 정식으로 찬불가 책자가 출간되어 포교당에서 사용되었음을 정선포교당에서 포교사로 일했던 김정묵 포교사의 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작사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작곡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학유 스님이 서문에 기록하신 내용처럼 이때에도 다른 곡에 가사를 붙여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록들 당대 살았던 사람들에 의존 김정묵 포교사 최초 찬불가 집대성

그러나 몇 곡들은 작곡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불교음악의 창작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좋은 기록이다. 1985년에 “효동선원 불교 교양대학 자료집”에 기록된 서창업 선생의 글을 보면 “1972년 10월에 가사를 주면서 마땅히 부를 수 있는 애창곡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달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제는 찬불가의 긍지와 불교음악인의 자존심을 지켜야할 때가 왔다. 조학유 스님의 서문에서 “불교 창가라고 하는 기종은 있었으나 가사뿐이고 주곡이 불일하야…부득기…타종교의…호곡들을…후일에 작곡가에게 양 합니다.”라고 했고 김정묵 포교사는 “…나는 음악을 모른다. …노래가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뒷날…바로 잡혀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서문에 기록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인가? 김정묵 포교사가 불교 최초로 찬불가를 집대성하여 세상에 펼쳐놓은 기록으로 단기4281(1948)년 4월 8일에 출판된 찬불가집의 서문을 보자.

“이 책에 수록된 노래들은 대개가 각 포교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수집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음악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수록된 노래가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세상에 보내는 바이다. 다만 뒷날 뒷사람들의 손을 거쳐 바로 잡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200개한정)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과정)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2. 교과목 및 지도교수

과 정	기 간	요 일	내 용	지도교수
사찰문화음식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전통음식과 대중화음식 조리법 교육 · 사찰음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 · 사찰의 절기에 맞춘 실습 교육	정산스님 외 교계 전문스님과 교수진

3. 개 강 :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4. 문 의 : 본 대학 사무국 (02-732-1206)
5. 특 전 : · 사찰음식점 개원 시 지원
· 행사 및 출장요리사 기회 제공

학 과	교 과 목	교 수	강의시간	제출서류
불교한문학과(3년) (정규 · 통신 50명)	· 육조단경,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불교경전(1), 한학연구입문 등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다도학과(3년) (정규 30명)	· 한국차문화사 (중국, 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박희준 교수, 박전열 교수, 지운 스님, 적경 스님, 선혜 스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불교장례문화학(2년) (정규 20명)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일무 교수, 김미혜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미술학과(3년) (정규 20명)	· 불교미술,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단청 등	김익홍(전 동국대), 법인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7년 3월 8일(목), 다도학과 : 2007년 3월 6일(화), 불교미술학과 : 2007년 3월 7일(수),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일(화)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7년 3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 대학원 사무국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철침같은 갈대 봉분 섬뜩한 권력 실상 대변



1대 태조 건원릉(2)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갈대를 보면 낯설고 섬뜩하다. 죽어서조차 부드러운 잔디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있는 이성계의 운명을 본다. 철침처럼 숭숭 솟은 갈대 아래 태조가 누워 있다. 살아생전 함께 묻히길 원했던 그리운 여인, 계비 강씨는 저 멀리 정릉에 있다.

창업(創業)은 쉬우나 수성(守成)은 어렵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천하의 맹장 이성계도 권력의 맛을 맘껏 음미하지 못했다. 재위 6년 2개월, 전반기는 개국 창업에 정신이 없었다. 후반기는 업장을 녹이기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또한 개인적 애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생이었다.

태조는 6명의 부인에게서 8남 5녀를 두었다. 그 중 향처(鄕妻)인 정비 신의왕후 한씨와 그녀의 소생 여섯 명의 아들(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경처(京妻)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 그녀의 소생 두 아들(방번, 방석)이 개국 초 역사적 잔혹극에 주연, 조연을 맡는다. 각본, 연출 겸 주연은 태조 이성계다.

향처 신의왕후는 이성계와 혼인한 후 함흥 운전리에 살았다. 전장을 누비는 남편을 멀리서 후원하는, 고향을 지키는 맏며느리다. 둘째 부인 강씨는 젊고 총명하고 친정이 권문세가여서 태조의 입신에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출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씨는 조선 건국 전인 1391년에 죽었다. 그래서 그녀의 무덤은 개성(제릉)에 있다. 태조의 총애가 강씨에게 기운 것은 당연하다. 강씨가 자기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한 것 또한 인지상정이다.

사고의 발단은 조선 개국 한 달 뒤인 1392년 8월 강씨 소생인 여덟 째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시작됐다. 방석의 나이 불과 11세였다.

장남 방우의 나이는 39세, 방석의 세자 책봉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행동파 야심가인 정안군 방원의 나이는 26세였다. 방원은 맏형인 방우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그는 이미 태조의 눈 밖에 난 인물이다. 체질과 성향이 비슷한 존재들은 서로 경계하고 멀리한다. 서로의 속내를 잘 알기 때문이다. 현대사도 마찬가지다. 강(剛)은 강이 싫고 유(柔)는 강이 좋다.

방원은 억울했다. 비난을 감수하며 정몽주까지 죽였다. 정몽주의 핏자국이 지금도 선죽교에 선명한데 나는 뭐냐? 공양왕을 폐위시킨 악역에 앞장섰지만 개국 공신 책록에도 제외당하는 굴욕을 감수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대가가 없다니.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죽기 살기다. 모 아니면 도다. 왕자의 난이 시작된다.

'이놈아, 너는 아니야. 너는 살기가 자욱해. 용(勇)은 빼어나지만 유(柔)가 없어. 그래서 너는 아니다. 무한 용맹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너무 격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태조의 한숨, 늙은이의 고민은 깊다. 그러나 아리따운 강비의 유혹과 깍두기 머리에 검은 양복 입은 측근들의 90도 인사가 든든하다. 10년 후면 세자가 스물 한 살이다. 왕권을 거머쥐고 휘두를 수 있다. 그때까지 튼튼하게 키우리라. 태조는 각오를 다진다.



우람한 무인석 뒷편으로 갈대가 숭숭 솟은 봉분이 보인다. 이성계의 성품을 보는 것 같다.

1398년 무인년 8월 25일, 그 날 밤은 스산했다. 이른 낙엽들이 풀풀 날리는 가을밤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살기 싫은 계모 강비도 2년 전에 죽었다. 태조는 병환 중이다. 한씨 소생 아들들이 시퍼렇게 벼린 칼을 들고 모였다. 거친 숨을 억누르며 방원이 입을 열었다.

왕자의 난 겪은 태조, 분노 한아름 안고 함흥으로 낙향

방원이 모시려 했으나 거부… '함흥차사' 무학대사가 해결

한양에 돌아온 뒤 궐내에 법당 짓고 말년 염불삼매로 보내

"형님들!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도전 일당이 우릴 죽일 겁니다. 선수를 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린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비장했다. 그들이 거느린 사병(私兵)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켰다.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라.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세자를 옹위하며 신권정치를 주장하는 무리들을 전광석화처럼 살해했다. 그리고 화의 근원인 세자 방석, 그의 한 살 위 형인 무안대군 방번을 체포했다. 그 후 그들은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방석의 나이 17세였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의 난' '무인정사' '정도전의 난' 등으로 부른다.

소식을 전해들은 태조는 가슴을 쳤다.

"이놈들이, 이노옴들이, 방원이 이노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들에겐 아니다. 권력이 피보다 진하다. 병석에 있는 예순 네 살의 노인 태조는 식음을 전폐했다. 패배를 모르고 휘달렸던 30년 장수 생활, 새 왕조를 일으켜 억조창생을 자식처럼 돌보겠다던 각오가 무참하고 허망하다. 상심의 극한에서 넋이 빠졌다. "이놈들, 오냐! 니놈들 멋대로 해라."

태조는 난이 일어난 다음 달, 1392년 9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렸다. 거사에 성공하자 하륜, 이거이 등 방원의 심복들이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방원이 극구 사양했다. 장남인 방우는 1393년에 이미 병사하고 없었다. 방원의 뜻에 따라 둘째 방과가 세자로 책봉되고 왕위를 오른 것이다.

태조는 1차 왕자의 난 후에 상왕, 2차 왕자의 난 후엔 태상왕이란 이름으로 시름의 날을 보냈다. 살육전의 중심에 방원이 있음을 알지만 이빨 빠진 사자, 늙은 용은 마른 눈물을 삼킬 뿐이다. 용서와 화해를 하기에도 늦은 나이에 태조는 분노와 증오를 한아름 안고 고향 함흥으로 간다. 태조는 방원이 있는 곳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문안차 방원이 보낸 차사들을 오는 족족 죽였다. 가서는 소식 없는 이름, 함흥차사다. 아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가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수 있을까. 방원(3대 태종)의 심경 또한 쓴맛의 연속이다. 부자간에 불구대천지원수이면서 어찌 국론통일, 화합을 말할 수 있으랴. 함흥에서 이를 갈고 있는 늙은 용을 궁으로 모셔올 방도는 없는가.

증오, 분노, 울화가 가슴 속에 차고 넘친 이성계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온 이는 무학대사다.

"태상왕 전하, 어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옵니까? 증오의 우물은 퍼내도 퍼내도 한이 없습니다. 미움을 거두고 백성을 생각하시옵소서."

"자식 없는 대사가 부럽고 부럽소. 나는 무엇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것이오? 대답 좀 해 주시오."

태조는 오랜 친구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1402년 태조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궐내에 덕안전이란 법당을 짓고 염불삼매의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5월24일 창덕궁 별전에서 향년 74세로 이승을 하직했다. 지금, 원치 않았던 자리, 동구릉 내 건원릉에 누워있다. 말년의 염불삼매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당장 병풍석을 걷어차고 일어날 것 같다.

'전하, 밤새 안녕하시옵니까?'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살곶이 다리. 이성계가 이곳에서 사냥을 즐기며, 주변에 활을 쏘았던 곳이라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동구릉(東九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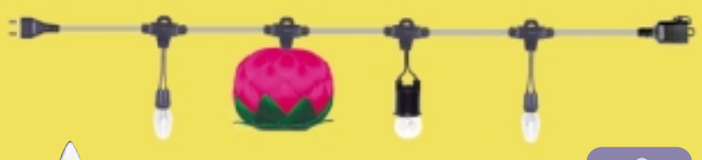


건원릉 능제 모습.

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 면적 1,915,891㎡(579,557평)한양 동쪽에 있는 아홉 개의 왕릉군, 그래서 동구릉이라 부른다. 전체 면적 약 58만평, 여의도 면적(2백70만평)의 22% 쯤 된다. 원래는 태조 왕릉 하나를 위해 잡은 터다. 44년 후 건원릉 지역으로 문종왕릉이 조성됐다. 이후 선조, 영조 등의 왕릉이 조성되어 동삼릉, 동오릉, 동칠릉으로 불리다가 1885년 마지막으로 문조(추존왕)왕릉이 조성되자 동구릉으로 굳어졌다. 짝수는 음수(陰數)이기에 호칭하길 피한다. 동이릉, 동사릉, 동육릉으로 불렸던 기록은 없다. 서삼릉, 서오릉도 마찬가지다. 두 개의 왕릉이 있는 공원은 능호를 합쳐서 그대로 부른다. 헌인릉, 태강릉이 그렇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역학 개인지도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 (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탈종공고
● 사찰명 : 왕복사
● 창건주 : 철안(정봉화)
● 소유권자 및 상속자 대표 : 정영도
● 주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08번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티벳 진품
대작 만다라(칼라차크라)
130×130cm
인연되시는 스님, 불자님
010-7157-0679

청정지역 실버타운
저렴한 가격과
최신시설
친절한 봉사로
편안히 모십니다.
010-9367-5982(주지직접)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사주역학의 대가
이원 선생과의 1:1 직접 상담으로
귀하의 길,흉,화,복을
예견하기를 바랍니다
이원 철학관 011-752-8319
•상담시간 12시~6시
•상담료:2만3만원
기업은행 310-042197-01-013
예금주:주민희

秘 法 전 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삼혼칠백의작용법(病)
2.달마사연장중도법(道)
3.도인 침술법(신효함)
4.돌아가신 조상, 무덤 보는법(業)
5.빙의, 정신병 치유법(薰)
6.영가천도비법(篇)
조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보시도 약간)
055)573-7832/010-3189-3525
경남 의룡 해용사 법경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넌)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스님 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범천명리강의실

사주입진법	3월 5일(월)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3월 6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3월 7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3월 9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서 함께
하실 분
041)857-5880

기도 열심히 하는 참신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소임을
원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0-6831-2544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주지나
스님이 없는 포교당
주지를 원합니다
사주역학 능통함
▷60대 비구승
010-5574-5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절충)
50~60대
▷서울구로
010-9478-9607

경력이 오래되신 운전기사님과 종무원 (보살님)한분구함
010-6406-1403
02)379-1042

부전스님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40대 비구승)
010-7642-20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1-9721-2198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40~50대
051)542-4848
011-551-1719

부전자리 찾습니다
010-4586-87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봉화 산중 사찰)
50~60세
017-522-4569

60대 후반으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 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무보시로 봉사 하며 살곳을 찾습니다
운전 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건축 기술도 있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평생도반 신의와 믿음으로 남은여생 함께 기도하며 살고싶은 신심이 건강한 을미생 비구승입니다 아담한 기도처를 마련해줄수있는 보살님 인연바랍니다
018-406-3073

도 반
자손없고 노후가 걱정되시는
마음 착하신 도반(보살님)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하실분
61세 처사입니다
010-8776-5418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실제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 행자 모집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기도 열심히하는 참신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소임을 원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0-6831-2544

산세수려한 사찰중 염불기도전문스님이 필요한 사, 암은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사찰 암자,포교당 창건하시는 스님안내
법당불사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큰 법당에 모셔야할분
후불탱,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데 막상 조성을 하자니
날짜도 없고 금전으로 고민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은 대웅전에 모실분 후불목탱순금, 칠성목탱
순금, 신중목탱순금, 부처님좌대 포함 4자3치 삼신불 기타
전체를 스님해외 사정상 절반도 안되는 가격 인연바랍.
대작품 가능성이 있는분만 답사
010-6411-2882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 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70대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반야가 감맛이라고 가르쳐주신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저는 안강읍 북부국민학교 앞 작은 상점에서 43년 전 어느 일요일 부모를 도와 상점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20대 중반의 비구니 스님 한분이 장갑을 사러 왔기에 장갑을 사서 가시는 스님을 불러 세우고 "무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반야심경을 외우기는 하는데 그 뜻을 몰라서 그러니 해석을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니까 잠시 장갑을 손바닥에 톡탁톡탁 몇번하시다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단 감과 떫은 감의 차이가 아닙니까?" 하고는 걸음을 총총 뒤돌아 보지도 않고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후 저는 10여년동안 감을 재배하는 법인 모양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반야심경 해석집을 어떻게 구해 보고나니 그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불문에 들어와 지금은 대한불교 선각종 스님이 되어 영천 보현산 자락에 작은 토굴을 짓고 부처님의 경을 사경 간경하면서 지낸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나, 소납 역시 60대에 들어서고 보니 왜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이 나에게 반야가 감 맛이라고 하셨는지 평생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소승은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게 되었으니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영천 보현산 등 명 사
혜명스님(속명:최영군)
054)337-4572
019-506-9448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3. 5 (월 · 화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 ● 법당:19평 ● 요사:40평 ● 부지:150평 (무속인환영) ● 가액:2억7천
● 위치:경기도 ● 법당:170평 ● 요사:100평 ● 부지:3500평(외 2500평) ● 가액:65억
● 위치:대전 ● 법당:30평 ● 요사:60평 ● 부지:700평 ● 가액: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조경완료
● 바로 앞 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포교당안내
● 위치: 동두천 땅 500평(산)
● 법당 50평,요사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9-477-6674

포교원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258-1147

사 찰 안 내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운영하실분
전국 포교당 양도,운영하실분
전국 임야, 토지, 양도, 구입하실분
부전스님 공양주 갈분이나 쓰실분
천하명당(사찰,묘지,별장)을 구하시는분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중구 내동 신포시장 부근
● 삼층건물중에 3층, 30평, 전세만 6,500만원 월세 없음.
● 법당1, 방3, 부엌1, 화장실, 법당시설 양도
017-325-7745
010-7121-0408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방 4칸(스님방, 친견실)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53)783-0106
016-528-3736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임법당 포교원 방2 욕실 도시가스 조그만 거실겸주방, 부처님 4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무속인도 관계없음
● 꼭하실분 전화요망
010-9913-0031
031)314-003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부처님 전 기도후 점지 된 땅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사찰(암자) 안내
● 위치: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밥흐르는 비석)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 약 200평 태양열, 단독지하수 완비
● 요사채(슬라브건물)1층 60평
● 법당:20평(아미타불 삼존불)
● 가액: 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8487
010-5883-5005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임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7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임법당안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 평수:약50평 정도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텃밭, 주차장완비
017-857-5588

포교당 안내
● 위치: 김포 신도시
● 건물: 4층에 2층 50평 삼존불, 후불, 신중, 감로, 원목불단 법당시설 특급완벽, 즉시 법회가능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세 30만원(조정가능) 시설비: 답사후 가격절충
● 포교에 원력을 갖고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11-763-1080

토 굴 안 내
● 위치:충남부여
● 대지:315평
● 건물 3동, 기도도량 팬션 건축가능 급양도
● 4000만원(절충가능)
010-7763-3575

포교당안내
● 위치: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방3,주방)
● 평수:2층 34평 (법당, 접견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888-0130

사찰부지(별장, 팬션) 안내
● 위치:경주, 감포간 추령터널 입구
● 부지:534평 건축허가 필
● 특징:정남향 (자라형국,1급지하수)
● 가액:1억 7천 3백만원
연락처011-9517-8526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암자안내
스님이 공부하던 곳
● 490평
● 금액:1억 5천
011-432-6451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3층건물중 3층 45평
● 모든 시설 및 집기 완벽함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저가로 절충가능
011-339-7221

사 찰 안 내
● 위치: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4거리
● 평수:50평(3층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1,작은방1, 창고, 주방 및 거실 없음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큰방 에어컨 설치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손볼거 없음)
011-9000-6311/053)290-6311

암 자 안 내
● 위치: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지
● 임법당,요사채, 연꽃연못,정원 총 32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7-813-9126

사찰안내
● 위치:강원도 횡성군 둘케이트에서 1km
● 대지:500평
● 대웅전,공양간, 주지실, 시설최고 완비
● 즉시법회 가능
● 가액:상담후 결정
010-3161-9469

사찰안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지주가 되었다 하면 큰 부자가 되는 명당
● 약 10,000평 (무엇이든 건축가능), 경관수려
● 토목공사 완료
● 최신식 원룸형
● 60평씩 2동(신축)
● 총 15억(대출 5억가능)
지주연락처010-8992-6787

토 굴 안 내
● 위치:순천시내(10분거리)
● 대지 200평, 임야 800평
● 임법당,공양간,차고, 샤워실,방6개
● 교통편리
● 가액:5천5백만원
010-3686-0150

포교당안내
● 위치:부산 금정구 금사동 금용암
● 평수:40평 방2, 화장실,부엌 삼존불, 탱화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051)529-3302
051)863-7198
010-8322-5858

포교당(급) 안내
● 위치:대구 동구 각산역 4층건물 중 4층, 약70평
● 시설: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61-3379

오래된 사찰안내
● 법당20평 삼성각5평, 미륵당40평
● 요사채 방5칸, 창고2채, 텃밭1,300평 밤나무밭 3종 수확중
● 보증금 3,000만원 연 24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782-4465
5시 이후에 전화 요망

토 굴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전원주택(조립식) 거창시내 8분
● 대지 96평 건평25평 방2,거실,욕실,부엌,다용도실
● 공기좋고 조용함 토굴 휴양 적합
● 가액:2천9백만원
010-9705-992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오래된 작은 암자 구합니다
▷관리 보수하면서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50대 비구승입니다
▷적당한 임대나 월세 가능합니다
010-9828-5595

포교당안내
● 위치:경북 구미 최고요지 2층 약 40평, 삼존불, 방2, 주방 겸 거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합계 1500만원
011-540-3313

포교원 안내
● 위치:사당역 2분거리 상가 2층
● 방3, 거실, 주방, 욕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약간
011-9150-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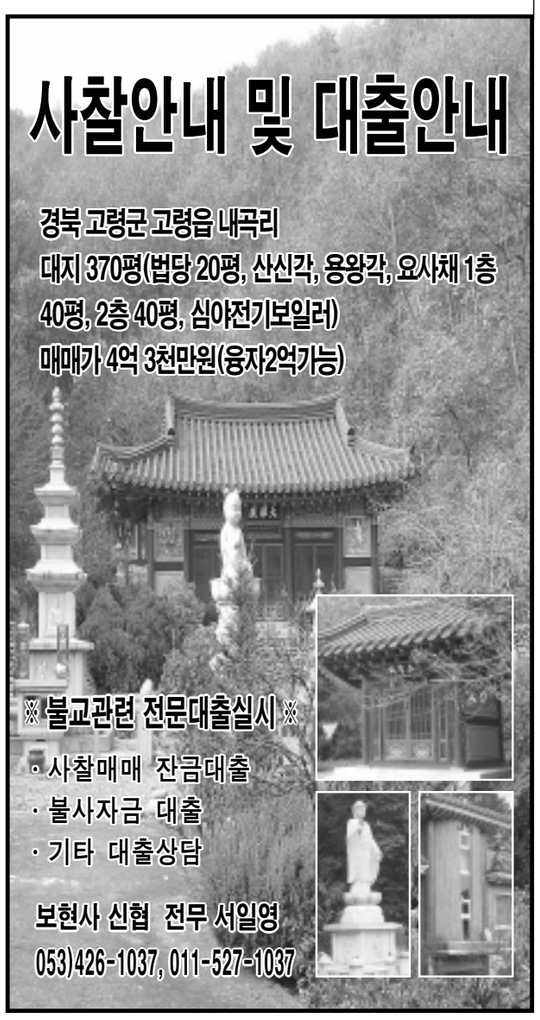
미 륵 사 절 안 내
● 위치 : 이천시 갈산동 76-1번지(이천 법원 옆)
● 대지 513평, 도로 30평, 법당 25평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7억원
연락처 : 031)638-6880
010)5600-6880/017)212-6880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 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전문으로 의식하실 분)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갖추어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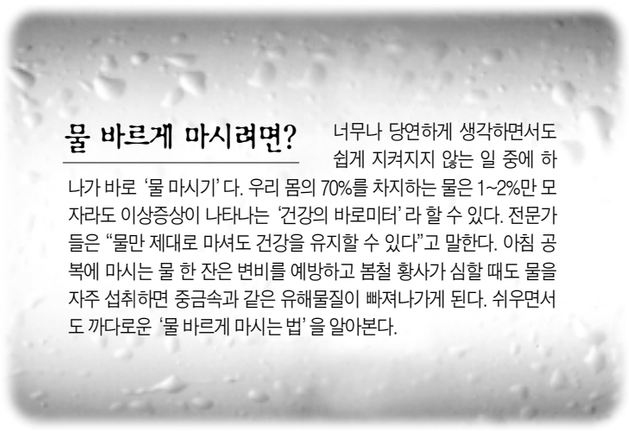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 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하루 여덟 잔 제대로 마셔라





물 바르게 마시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물 마시기'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1~2%만 모자라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건강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물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변비를 예방하고 봄철 황사가 심할 때도 물을 자주 섭취하면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게 된다.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물 바르게 마시는 법'을 알아본다.

물은 독소 배출, 체온 조절 등 '인체 윤활유' 역할
입 마르고 손톱 자주 갈라지면 '만성탈수증' 의심
하루 2~2.5ℓ 섭취 적당, 씹어 마시는 습관도 중요

▷ 왜 '물'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돼 있다'고 말한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물병자리)를 쓴 미국의 저명한 물 연구가 뱃맨겔리지 박사 역시 '거의 모든 질병은 몸의 수분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물은 혈액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 영양분과 호르몬 · 효소 · 산소 등을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침과 위액 · 담즙 등의 분비액을 구성하며,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물은 장기 사이에 스며들어 장기의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쉽게 만든다. 물을 '인체의 윤활유'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밖에도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의 점도를 조절하는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성분이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체기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 내 몸은 만성탈수?

늘 피곤하고 입안이 마른다. 혓바닥이나 손톱이 자주 갈라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진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만성탈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만성탈수증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질병은 아니지만, 몸의 지속적인 수분 부족이 누적된 '영양부족'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인 1.5~2ℓ보다 적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물 섭취량을 늘린 후 앞서 열거한 상태가 호전된다면 만성탈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성탈수가 누적될 경우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갈증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는 변비와 비만 · 피로 · 노화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커피나 녹차, 콜라 등의 양을 물 섭취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음료는 수분섭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식사 시 먹는 국의 양 또한 제외해야 한다. 국에 포함된 소금, 단백질, 아미노산 등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 성인 하루 섭취량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은 약 1.4ℓ, 땀과 호흡 등으로 배출되는 수분은 약 1ℓ다. 적어도 2~2.5ℓ의 수분은 섭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일이나 야채, 식사 등으로 섭취하는 수분이 약 1ℓ 정도이므로, 물로 보충해야 하는 수분은 1~1.5ℓ이라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이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물 섭취량이 하루 평균 980ℓ, 여성은 740ℓ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에서도 보듯, 좀 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일반 권장량보다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니코틴과 알코올을 배출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는 전문가들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몸무게 1kg당 33㎖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조언한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250㎖ 잔으로 7~8잔 정도가 적당하다. 물은 입안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두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끼는 상황은 이미 '수분 부족'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로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너무 급히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마라톤 등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수분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어떻게 마실까?

물은 맹물이나 끓인 수돗물이 적당하다.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적게 준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정석이다. 한꺼번에 물을 몰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을 희석시켜 체액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천천히 씹어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 식사 중이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물을 되도록 적게 마신다. 소화액을 묽게 만들어 소화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 식사나 운동하기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는 것이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아란야학교 신입생 모집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의 서울시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인 아란야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아란야학교는 정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다. 기존에 소속된 학교에 적은 두고 아란야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존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중학교 1~3학년 학생 20여 명을 모집한다.(02)421-6077

'마음 바꾸기 명상치료 연수회'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제5차 '마음 바꾸기, 명상치료 연수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명상상담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진행되던 '주말 명상수련회'와 '마음 바꾸기' 프로그램을 통합 · 개편한 것으로, 영상유식관법과 간화선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참금은 20만원. (02)2236-5306

인류 문화속의 茶

26. 유럽으로 건너간 차

茶를 사치품으로 여겨 상류층에서만 유행
커피 하우스 최초 차 홍보 포스터 등장

차가 유럽인들의 미각을 자극하기 시작할 무렵, 유럽에는 각 나라마다 이미 여러 종류의 식물을 달인 음료가 있었다.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허브 차가 있어 가정마다 기침약이나 건강식품으로 이용했다. 커피나 초콜릿은 이미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커피하우스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에 차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됐다. 사실상 지식인이나 귀족들은 쓴 맛이 나는 동양에서 온 '차'의 맛 보다는 신비한 동양문화를 지닌 도자기나 다기(茶器)에 관심이 더 많았다.

차와 도자기류는 네덜란드의 상인이나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일부 귀족들은 사치품으로 이용했으며, 영국의 일부 가정에서는 찻잎을 오랫동안 끓여 마시고 남은 찻잎에 소금과 버터를 발라 먹는 등 음료보다는 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커피 하우스(게러웨이스)

차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약리성에 대한 기대로 의사들의 분쟁거리가 되었다. 코르시카(Corsica) 출신의 의사 시몬 파올리는 중국에서 들어온 차는 유해성분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차의 효능에 대한 공개토론을 거치면서 잠시 유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상류층에만 마시게 되어 더 이상 음료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독일에서 차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문학 살롱에서 인기 있는 음료였지만, 커피에 비해 수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었다. 프랑스인과 독일인들에게는 이미 깊숙이 뿌리내린 와인과 맥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한 독일인에게 차는 사치품으로 인식됐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차는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서 귀족들의 사치품이 되지만 국가의 차 정책으로 신사에서 극빈층에 이르기까지 유행하기도 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영국의 차 수출이 가져온 결과다.

영국에서는 토머스 게러웨이가 1657년 커피 하우스에서 차와 찻잎을 함께 판매해 차 마시는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지만, 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 커피 하우스에 드나드는 지식인, 상인, 귀족층만이 이용하게 됐다.

커피 하우스 건물 벽에 차가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최초의 선전광고 포스터가 붙으면서 시민들에게 차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크롬웰(1599~1658)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에 특별세를 부과하지만 이로 인하여 밀매가 성행하는 계기가 됐다. 단속이 심해지자 교회의 지하실에 있는 유골이 담긴 관속에 향기나는 차 자루를 숨겨두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성직자들이 밀매에 참여하면서 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밀거래로 구입한 차를 마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한편 이 당시 차(茶)는 광동어계인 차(Ch'a)와 복건어계인 테(Tay, Te)로 발음됐다. 차(Cha), 차이(cay)는 주로 북경, 일본, 한국, 터키, 러시아 등 육로(陸路)를 통해 전해진 곳에서 호칭되었다. 테이(Tey), 테(The)는 주로 해로(海路)를 통해 전해진 곳으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리랑카, 남인도 등에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영국에서는 차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18세기에 차의 호칭이 '티(Tea)'로 통일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불자들을 위한 덕운큰스님의
반야심경 강좌!!!
경전도 배우고 건강강좌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지혜로운 삶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모든 불자님의 갈증을 풀어주실 덕운큰스님의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07년 3월 2일 ~ 5월 30일 (매주 금요일)
▣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 시 간 : 오전 10시 - 12시 (반야심경 강좌)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건강강좌)
▣ 동참금 : 6만원(3개월)
▣ 문 의 : ☎ 3487-2311~3 / H.P 011-335-9351(김국장)
한국불교태고종 활인정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호

화제의 신간 21세기 新 개념의 한방처방학!!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Ⅰ,Ⅱ권】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한의학과 음양오행학 사주명리학을 접목시켜 신규의 의학이론을 창시하였다 이 신규의 의학이론에서는 사주음양오행에 기초를 두고 인체 장부의 허실을 알고 개개인의 체질을 판단하고 처방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뿐만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여부를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徐昇煥 지음 / 4×6배판/ 양장본 Ⅰ권 880쪽, Ⅱ권 680쪽/ 각 권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6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02) 921-8434 Fax.(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극락정토의 아름다움 한 몸에 가득 품은 듯

불화 속의 명장면 (23)

日 교토 선림사소장 고려 아미타여래도



그림1 : 아미타여래도(고려말기, 교토 선림사소장)

달님이시여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불전에
일러 사뢰소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두 손 모아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하는 이가 있다고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 대원 이루실까

〈삼국유사 권5 신주 : 광덕(廣德)의 원왕생가(願往生歌)〉

밤하늘 달님에게 서방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의탁하여 읊은 노래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사문인 광덕이 지은 향가로 그는 아미타염불에 전념한 끝에 그의 염원대로 극락정토에 왕생했다지요.

서방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은 전생에 법장비구였습니다. 법장비구는 고통 속의 중생을 남김없이 구하기 전에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다며, 사십팔 가지의 커다란 서원(48大願)을 세우고, 극락정토라는 낙원을 이루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법장은 영겁의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거듭한 끝에, 그 업력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아미타불이 됩니다.

이러한 장엄한 아름다움을 한 몸에 품은 신비스런 아미타불(그림1, 고려말기 14세기추정, 교토 선림사소장)을, 필자는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의 유물창고에서 배견한 적이 있습니다. 검은 배경을 뒤로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푸른 연꽃을 탄 아미타불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효과는 약 7백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생생하게 남아있는 채도 높은 금선묘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이 아미타여래도는 여타 아미타여래도와는 무언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엄하면서도 존재감이 아주 강한 이 아미타 존상은, 매우 명상적이며 심오한 적멸(寂滅)의 분위기를 한껏 뿜어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아미타여래도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붉은 납의(衲衣, 가사 또는 대의)는 둥근 원 문양으로 가득한데,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름 5센티미터도 안 되는 원문양은 생동감 넘치는 연꽃의 덩어리입니다(그림2). 연꽃 줄기는 힘차게 동심원의 넝쿨을 만들며 연속적으로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불의 오른편 무릎을 덮은 납의 문양으로는, 국화 · 석류 등 여러 가지 화훼를 합해놓은 듯한,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보상화(寶相華)가 포도송이와 같은 보주를 줄줄이 쏟아내며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림3). 아미타불의 오른쪽 어깨를 덮는 가사 밑으로는 녹색 복편의(覆偏衣) 자락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영기(靈氣)가 구름처럼 가득 피어오르고 이 속에서 금빛 봉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기가 모여 봉황으로 화한 듯한 형상입니다(그림4).



그림2 : 아미타여래 가사의 연꽃문양



그림3 : 아미타여래 가사의 무릎 부분 디테일

명상적이며 적멸(寂滅) 분위기 아미타 존상 독특
연꽃동심원 · 금빛 봉황 등 형상 성스러움 자아내
육각형 수미단, 남송 항주 불화에서 영향 받은 듯

이러한 디테일의 극적인 화려함은 깊은 고요함을 표방하는 아미타불의 외적 정적과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며,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황금의 땅, 천상의 음악, 흩날리는 꽃비, 극락조의 비상, 향기로운 미풍, 금모래가 비치는 영롱한 연못물 등의 묘사로 표현되는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여래의 한 몸 안에 다 품은 듯합니다.

유사 시기의 다른 아미타설법독존도는 본 작품과는 다르게 높은 육각형의 수미단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데, 이는 소위 당시 국제양식으로 통했던 중국 남송의 수도 항주를 중심으로 유행한 불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본 작품은 기본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도 타력(他力)과 자력(自力)이 만나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표현한 듯 독특한 적멸의 분위기로, 유명한 서구방필(徐九方筆)의 수월관음도와 더불어 고려불화의 백미라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아미타불에 귀의합니다)' 이라는 여섯 자 명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민중과 가장 가까운 신앙으로 아미타신앙은 유행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부르는 염불만으로 극락을 보장한다는 정토신앙은, 그 유래가 원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효는 화엄의 대가이지만 화엄사상과 더불어 정토사상을 그 양축으로 삼았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개혁을 단행한 광종 역시 선교(禪敎)일치와 더불어 선종과 정토종의 합일을 꾀하는 선정(禪淨)일치를 추진했고, 고려후기 백련결사를 일으켰던 요세 역시 교학으로는 천태의 법화사상을, 실천적 신앙으로서 염불정토사상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림4 : 아미타여래 오른팔 옷자락 봉황문양

정토신앙은, 시대에 따라 민중을 포섭하는 방편으로서든 또는 실천적 수행으로서든, 화엄 · 법화 또는 선종과 결합 또는 병행하여, 영원한 중생이 궁극의 염원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불교를 교학적 또는 철학적 학문이 아니라, 신앙으로 또 종교로 만드는 역할은 물론 이 정토신앙이 담당했겠지요.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은 '꽃은 왜 피는가'에 대한 명제에 대해 그 생식적 기능이나 의미를 따지지 않고 '피기위해 핀다' 라고 했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핀다면, 새는 먹이나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기 위해 납니다.'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성(佛性)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공기가 감미롭고, 흐르는 냇물의 투명함이 눈부시고, 풍경소리가 천상의 종소리로 울려 퍼지고, 생명력을 품은 신록과 각종 꽃과 나무와 새들이 아름답게 빛나 보인다면, 존재하는 것에 기능과 효용 또 이유를 달기보다는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청정한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이 사바세계 예토(穢土)에서도 정토(淨土)를 체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석가모니는 젊었을 때 '인생은 고(苦)' 라고 정의했지요. 하지만 그가 열반에 가까웠을 때, 그는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물들이는 장밋빛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은 실로 아름다운 것' 이라고 했답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산야초 향(좁) 잎에 7년 숙성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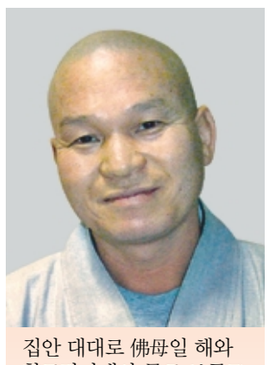
달마도량 거창 달마사 **뽀얀 미백 돌려줘!!!**



지난 7년전 신문과 방송언론을 통해 황토달마가 처음으로 알려진 일이 있다. 그 귀한 재료가 반죽되어 산야초 향 재료 속에서 장장 7년 동안 숙성되었다. 얼마전 그 황토를 달마조각을 위해 꺼내던 날 황토가 얼굴과 손에 팩이 되어 뽀얗게 되어 서로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냥 황토팩이 아니다. 산야초 머금고 얼고 녹아 7년 숙성된 팩이다. 지금 달마사에서는 바빠진 이유가 있다. 검고 주름진 피부가 평생 햇빛 한번 안본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웃주민들이 찾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잔주름이 제거되어 놀라워 하며 뽀하얀 피부를 기다리는 분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청오스님은 맑고 밝은 얼굴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 또한 마음을 정비하는 수행이 될것이라고 했다.



크기(35X52cm)달마복등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야초 원료로
태우지 않는 향 보급으로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 7년 숙성 아미수 황토팩 특징

1.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자연팩
화장독을 제거하여 지금보다 더 노화되지 않고 사는 비결.
2. 청오스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
맷돌에 갈아 풍구에 날려 물에 앙금 제거 후 7년 동안 산야초에 숙성으로 금쪽같은 팩이다.
3. 한정품(대량생산이 아님) 미백과 잔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능.



창업! 미백으로 스트레스 제로
지역총판, 사찰내 용품점 모집 (무점포 창업 가능)
◆ 성공기대감 상담문의 ◆ 055)941-1083 010-4595-0017

덕유산 달마사
●주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번지
●매주 일요일마다 달마사에서는 무료황토팩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
●계좌번호 : (농협) 841067-52-031220 김정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졌듯이, 또는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짧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물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둠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내는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들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타진해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닥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땐 웃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맛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 단전을 할 때 배꼽 밑에다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느끼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되게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도 어떠한 부분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모든 면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한'이라는 것은 이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서 한데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돌아가니까 '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생명체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손을 움죽거릴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상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한 화병에 여러 가지 꽃을 담아서 조화가 되게 하듯이, 산에도 모든 게 조화가 돼서 있듯이 그렇게 조화가 돼서 연방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의 소임 맡은 지금 대표인 즉, 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억의 생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5억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이 몸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거기에 응해서 돌아가는 것이요, 또 그 마음에 응해서 바깥의 상대를 접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뜻을 이루어서 참자기를 자기가 발견한 자는 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계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계법을 지키지 않는 반면에 결국은 범하지를 않는다. 앉아서 다리를 틀고 좌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이니라.' 한 것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젊고 늙고 간에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앉은 방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중생이라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막댕이만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할 줄 알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끌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여러분이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 아이구,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니 인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고 이런 거는 공부를 잘했고…, 하더라도 착을 둔다면은 그것도 선인(善因)을 짓는 거죠. 집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둬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空했으니
>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하라

그렇다고 '마음 내놔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팔십종호(八十種好) 할 때 '종호', '종'도 '호'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 부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언짢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려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린 이 한생각을, 시대로 봐서도 우리가 단연코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크게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려면 작게 생각하고, 내가 우주 바깥을 벗어나려면 벗어나고 안에 들어있으려면 들어있고,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있고, 바늘구멍 속에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자기의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활 속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렇고, 나라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사회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각중(刻中)에 어떠한 걸 봤다, '이 참 위태하구나!' 이럴 때 즉 '이럭하면 안 돼!' 하는 그 일념을 낼 수도 있죠.

한 사람의 한생각, '한 그릇'이라는 뜻도 되고 '한마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5억이라는 생명의 능력도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부담이 없이 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딛고 다니게 하고 또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몸뚱이는 하나가 아니라 5억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대표인으로 됐는데, 대표인끼리 또 한데 모이면 그 '한'이 너무도 광대무변해서 어디고 안 닿는 데가 없이, 아니 담을 게 없이, 아니 돌아가는 게 없이, 아니 덮는 게 없이, 아니 비치는 게 없이 광대무변하게 상응할 수가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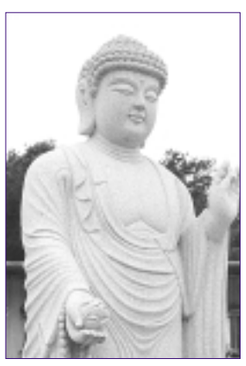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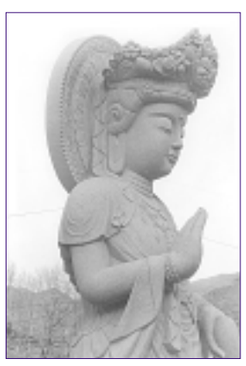
☞22면으로 계속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도성스님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양지기 저자
이종두 원장의 천기비법 대공개 강좌



일 자	과 목	교 육 내 용
1주차 이론1	1. 동양철학	– 일리삼원론, 삼극론, 기와 효의 상관관계
	2. 효의 원리	– 효와 후손의 사주 운명과의 상관관계 – 부모생존시 효와 혈과 후손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 조상 유택이 후손 양택(집,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3. 풍수	– 풍수지리학 관산법의 이해 – 역학/사주와 기의 연관성
	4. 수맥	– 수맥 찾는 방법, 수맥을 100% 차단하는 방법 – 수맥과 지기와의 상관관계
	5. 지기학	– 양기, 음기
	6. 기와 혈	– 혈
	7. 운과 기	– 건강(질병, 장수), 삼재우환, 재운/관운과 기
	8. 양명기석	– 양명기석 및 지기가 인체/농작물/동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2주차 이론2	1. 양택론	– 잠자리/주택재운/학업성적/사업장과 혈(양기)
	2. 음택론	– 주택 지기(양기,음기)의 혈진단 및 명당 처방 방법 – 유택(매장, 납골)과 음기, 양기(혈) – 유택의 혈진단 및 명당 처방 방법
2주차 실 습	1. 양택실습	– 주택/사업장의 지기/수맥/혈 진단 및 실습 – 주택/사업장의 음터를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3주차 실 습	2. 음택실습	– 유택(매장, 납골)의 지기/수맥/혈 진단 및 실습 – 유택의 음터를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4주차 종 합	1. 인체건강진단방법 강의 및 실습 2. 종합 정리 및 질의응답, 교육이수증 수여 및 우수교육생 포상	

◆주 관 :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효도원)
◆일 시 : 2007년 3월 11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10시 ~ 17시 (4일 교육, 중식 제공)
◆강 사 : 음양지기의 저자,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 원장 이종두 직접 강의
◆참 가 비 : 60만원(양명기석 사은품 증정)
◆입금계좌 : 우체국 014167-01-018064 박서연(효도원)
◆접 수 : 전화접수, 입금순으로 선착순 50명 마감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 http//www.jigi.org 02)579-2560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

☞21면에서 계속

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빨리 알 수가 있을까, 지속적으로.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한생각 낼 때에…, 한생각은 생각 내기 이전이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하여금 생각을 낼 때, 크고 작은 것은 그대로 유(有)의 법으로써 그냥 무심으로 해 가야 되겠지만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씨름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약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한번 이겨보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야! 저건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게임이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둬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팔이 저리고 아파서 못 쓰면 도저히 덩치 큰 사람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덩치가 작은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팔은 힘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몸뚱이를 넘기는 게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왕지사 이겼던 거 조그마한 사람이 이겨라.' 하하하,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써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이러한 한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없으면서도 실은 어떠한 위기에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명하게 너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서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게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가고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쥘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이니라!"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건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안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는 '자'로 하나가 돼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은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종지종풍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 자 모 집)

종 정 : **각암 대종사**
부 종 정 : **혜산** 중앙종회의장 : **정관**
총무원장 : **능인**
중앙선원장 : **혜일** 사정원장 : **운암**
중앙연수원장 : **범아** 포교원장 : **향운**
교육원장 : **정도** 무술연수원장 : **무성**
총무부장 : **정타** 재무부장 : **무심**
교육부장 : **명등** 사회부장 : **도안**
문화부장 : 혜명 호법부장 : **도천**
규정부장 : **혜능** 사서실장 : **자은**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 돌체 라마와 티벳스님 8명

1.티벳스님 조상 합동 천도재 뿌쟈
2.국제 보살계 (판챠실라) 뿌쟈
3.마정수기 소원성취 뿌쟈

위 내용 법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문 의: (054) 535-1669 / 011-229-1068 016-9281-1666
▶후 원: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8일 개강**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기초교리,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안양불교대학 특강교수

◆세민스님 - 전 해인사 주지
◆도영스님 - 전 조계종 포교원장
◆법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현각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정산스님 - 서울 경국사 주지
◆현종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국장
◆현호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권기종 교수 -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장
◆엄 앵 란 - 불자 방송인
◆남일우, 김용림 - 인기 불자탤런트
◆최 영 중 - 불자가수 '108가요 진행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 문의전화 ☎031)444-5935~6



불자 세상보기

이 근 후
이근후열린마음의원

자살, 역학적인 연구 급하다

참 각박한 사회다. 옛날 같으면 누가 자살을 했다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살을 해도 비집고 들어갈 신문의 틈새가 없다.

신문에 자살기사가 없다고해서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단세포적인 사고가 된다. 자살도 유명인이 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자살하는 사람이 꼭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기사에 나고 안하고는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허황한 이야기 거리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건 자살이 우리들에게 안겨준 충격도 그렇다. 자살의 이유나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를 해 왔다.

최근 자살과 관련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자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6.1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0년 6460명에서 2005년 1만2047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1844명에서 2005년 7776명으로 34.3% 줄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자살로 숨진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5배나 많아졌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성격이나 우울로 돌려버리기도 한다. 그 때 그 때 편리한 합리화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최면하곤 했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자살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한다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하려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자기 몸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률을 낮추어야할 절대 절명의 대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자살방지 대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통계와 원인규명 등 역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위한 터를 올바르게 고른다는 의미와 같다. 올바른 기초조사의 자료가 없이는 어떤 구상도 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역학 조사가 끝날 때 까지는 단편적이고 응급수준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존중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 실천 봉사 등 다양한 수준의 실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봉사자에 이르기 까지 자살의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고 이를 도울 수 있는 방편의 창출이 시급할 것이다. 지금 상담자나 사회복지사 치료자 종교적 교역자 등 많은 분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그 실천을 통합적인 이해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살요인에 대해 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습관과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살은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그 개인의 성격 경향이나 아니면 우울증상 등 질병과 연관되는 복합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사찰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찰은 이제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들의 기도 및 신행 공간이라는 종교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사찰의 기능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사찰은 종교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확대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성과는 템플스테이의 '인기'에서 확인 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타종교인까지도 사찰 체험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전향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호응은 웰빙 열풍을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찰로서는 문화운동이라는 측면과 포교라는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1번지 조계사가 올 한 해 동안 공간의 기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일환으로 시민선방을 개설하고 신행 문화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발표다.

조계사의 신행 문화 도량불사
사찰 기능변화의 '모범' 되길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얼굴이다. 그 위치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란 점과 조계종 총무원과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인사동이라는 특별한 문화 공간에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이 조계사의 지정학적 가치를 설명해 준다. 그런 곳에 위치한 조계사가 시민 누구나 찾아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런 때에 맞춰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불교계로서는 사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최상의 기회를 맞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운영은 적지 않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시설 개선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제까지도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 올 해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이 4배나 늘어난다니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4배 이상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 조계사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곧 불교인구의 저변확대로 연결된다. 사찰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포교효과도 커지는 것이다.

차제에 조계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도심사찰들도 신행 문화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다가서는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중앙 기구에서 지역 도심 사찰들의 개방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들은 물론 시설활용에 대한 노하우와 지역적 정서를 감안한 운영의 장단점 등을 공유한다면 지역 도심사찰의 운영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종교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삶의 현장은 가장 분명한 신행의 현장이고 수행의 디딤돌이다. 불교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장점들을 도심 도량의 운영 키워드로 삼는다면 사찰 역시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사의 변화가 한국 불교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 남녀평등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우리나라 성차별 조항 법률이 36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법제처는 2월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담은 현행 법률 360여 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는 선진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구시대적인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진국형 성차별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니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성차별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은 이루 표현하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섬세함과 직관력이 필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고용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처가 법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 기회에 국가의 장기적 전략으로 남녀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지침을 확고히 했으면 한다. 또 남녀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종교계에서도 성차별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신분이나 성차별이 심한 인도에서 불교를 창교한 이유가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시대에도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일 것이다.

■김원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 출판문화 '뿌리'부터 변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할인경쟁 등 총체적 인식 개선 시급

문화는 한 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문화적인 뿌리가 없었던 원나라는 대제국을 세우고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비운의 제국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폐전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는 파괴되었어도 하드웨어는 그대로 건재하였기에 가능했다. 문화는 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문화의 뿌리를 갖지 못한 나라는 발전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하는 대목이다. 문화발전의 한복판엔 출판이 있다. 우리의 출판문화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첫째, 출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도 안정된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출판사에서 양질의 도서를 발간하게 되면 일정부수를 정부에서 사들여 전국도서관에 보급하는 일들이 정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문화관광부와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도서관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출판사들이 양질의 도서 출판에만 전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추진중인데 정작 도서관의 도서와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판에 대한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출판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는 지인이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경우 책을 사서 격려하거니 보탬이 되어 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법보시라는 명목으로 무료증정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한다.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많아져야 보다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무료증정이라는 형태가 잠재적인 수요를 잠식하게 된다면 좋은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무단전재 무단 복사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강도질이라 한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엄연한 도둑질이고 강도짓인데도 거기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행한다.

넷째, 할인 경쟁이다. 요즘 일부 출판사에서 책값을 덤핑 수준으로 할인하여 출고하고 또 일부 서점에서 이를 부추기는 바람에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형 출판사들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출판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제조라는 서점측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박한 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출고를 하게 된다. 그나마 성공한 도서는 다행이지만 오히려 실패한 출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 출판시장은 점점 왜곡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독서인구의 감소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월평균 독서량이 0.8권으로 최하위라고 한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뿌리가 대고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독서가 선행되지 않고는 디지털 시대도 결코 도래할 수 없다.

최임배(학지사 편집부장)

제2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미국 최면의과대학 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등

미국 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 자격증 취득 可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중국 등에서 유효

개강안내 3월 8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시험 및 심사를 거쳐 최면지도사증 발급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성격 및 비행 교정,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 255-0734~5
•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정해년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부처님의 생애(팔상성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그분은 항상 대중과 함께 지냈고, 손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 한 벌과 발우 하나뿐이셨고 공양은 얻어서 드셨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니셨고 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곳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무르며,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막힘없이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졌고, 엎드려 절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분은 다시 선정에 드셨습니다.이것이 부처님의 일상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 법문내용

Ⅰ 〈도솔래의상〉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Ⅱ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Ⅲ 〈사문유관상〉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Ⅳ 〈유성출가상〉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Ⅴ 〈설산수도상〉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Ⅵ 〈수하항마상〉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Ⅶ 〈녹원전법상〉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Ⅷ 〈쌍림열반상〉 원담 스님(조계사 주지)

이 법문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범 월운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百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체로 글자 하나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분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圖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이후 작품은 廷潭스님께서 직접 써서 제작하는 관계로 10일전에 주문하셔야 명품 百福圖 작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께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리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